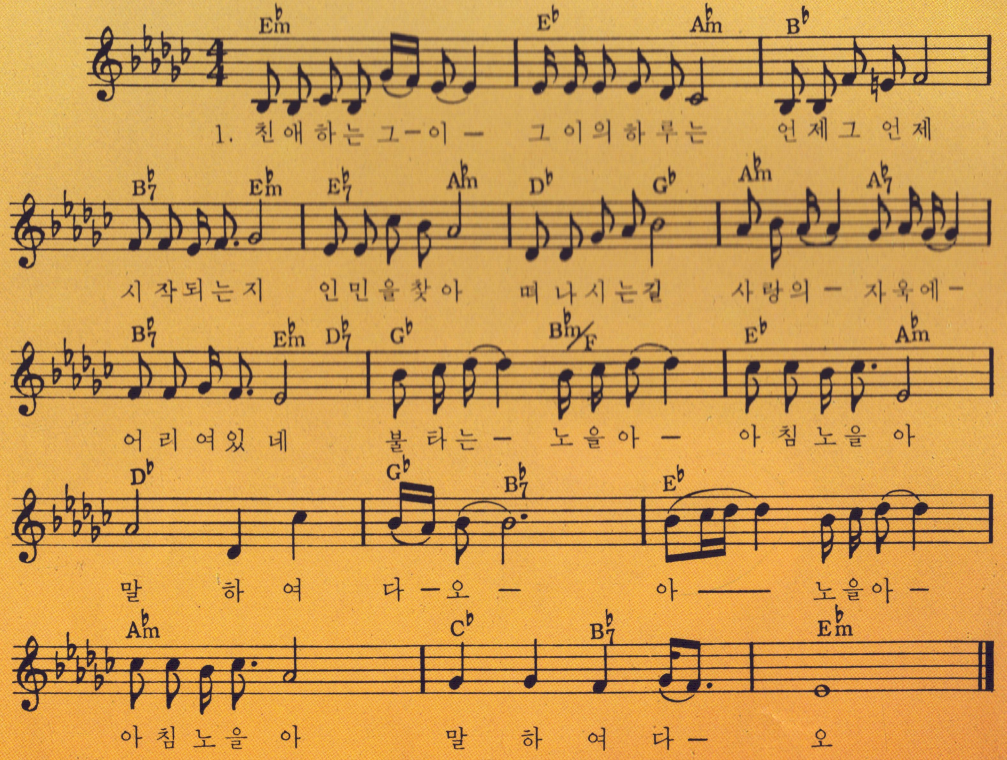
금수강산



12
1994

그이의 하루

정서적으로 (♩=80) 작사 김철, 작곡 전광수



2. 친애하는 그이 그이의 하루는
언제 그 언제 끝이 나는지
인민을 위해 지새우신 밤
당중앙 창가에 어리여있네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야 말하여다오
아 흐르는 은하수야 말하여다오

3. 친애하는 그이 그이의 하루는
짧은 순간의 휴식도 없네
인민을 위한 그 하루는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세월아 세월아 잊지를 말아 잊지 말아다오
아 세월아 잊지를 말아 잊지를 말아

금수강산
월 간
1994년12호(루계 제6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미합중국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 …………………… 2

잊을수 없는 해 ……………………… 4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다홍왜에서의 론쟁 …………………… 6

인민의 충복으로 ……………………… 9

고국방문 ……………………………… 11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 ………… 13

인민의 지도자
요 람 ………………………………… 14

수령님과 리극로 ……………………… 15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 17

추억에 남는 고장 ……………………… 18

완충기의 첫해를 보내며 ……………… 19

명승의 나라
견룡저수지 …………………………… 20

조중친선의 상징-창덕학교 …………… 23

친선의 정을 안고 ……………………… 25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10) ………… 26

귀국실현 35돐 ………………………… 27

리상을 꽃피워준 품 …………………… 28

인상기
통일애국성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 30

령길에서 ……………………………… 31

조국에 올 때마다 ……………………… 32

청진화학섬유공장 ……………………… 33

조선특산
해 삼 ………………………………… 36

어머니의 기쁨 ………………………… 37

풍년광산 ……………………………… 38

상봉의 날을 그리며 …………………… 39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실태와 전망 (2) ……………… 40

이름있는 학자 최치원 ………………… 42

안 주 시 (1) ………………………… 44

제4차 평양영화축전 …………………… 47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들 … 50

호수를 논으로 팔다 …………………… 51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안변, 통천 지구 ……………………… 52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자결한 왕자 …………………………… 53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 …… 54

달맞이꽃 ……………………………… 55

이해의 독자란을 펼치고 ……………… 56

표지 1면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사진 김휘률

표지 4면 동해바다가
사진 박지서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27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과 관련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이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서한은 다음과 같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이 2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발표되였다.

기본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 본 합 의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폐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폐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것이다.

2)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

잊을수 없는 해

서산에 해와 달이 지는 그런 나날들이 끊임없이 흘러 어느덧 또 한돌기의 년륜을 새겨온 이해(1994년)도 바야흐로 저물어가고있다.

통일의 원년을 앞둔 이해의 마지막석양을 손저어보내며 우리 인민은 크나큰 비통감을 안고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게 된다.

년초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말살책동을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오던 우리 인민은 뜻하지 않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하게 되였다.

지난 7월 9일 낮 12시(평양시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반만년 력사국에 처음보는 울음바다, 눈물의 바다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석하게도 인민들의 곁을 떠나가신것은 참으로 조선로동당과 우리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였으며 온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였다.

7월 19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영결한후에도 각지 우리 인민들은 매일 낮에도 새벽에도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으며 특히 그이의 서거 한달과 서거 100날에 즈음하여서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모셔진 그이의 동상을 끝없이 찾아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였다.

그것은 자기 수령과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혼연일체를 이룬 인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력사에 류례없는 숭엄한 모습이였으며 자기 운명의 수호자를 잃고 터뜨리는 인민의 절통한 감정의 분출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슬픔은 단순한 비애가 아니였다.

우리 인민이 흘린 눈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이였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맹세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근로자들과 새 세대청년들,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더 잘 받들어 모셔온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도 있는바와 같이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사회주의조국도 없습니다. 그의 운명이자 동무들의 운명이고 조국의 운명입니다. 수령과 당과 인민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그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적극 옹호보위하면서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왔다.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 서거로 가슴찢어지는 아픔과 비운을 안고 몸부림치고있을 때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수척해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뵙게 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그이께 삼가 편지들을 올리였다.

인민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따뜻한 위로를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혁명동지들과 함께 힘과 용기를 더 내여 수령님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라는것을 확언한다는 크나큰 믿음의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그 누구보다도 크나큰 슬픔을 안고계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에서 험한 산발을 수없이 넘고 헤치며 귀중한 산삼도 마련하고 험준한 벼랑도 톺고 강도 훑으면서 귀중한 보약재를 마련하여 소박한 지성품을 그이께 올리였다.

이에 대해서도 그이께서는 감사하다고, 힘을 더 내겠다고 하시면서 보내온 물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있는 환자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자고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평성시 문화인민학교 량경희학생은 일기장의 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94년 7월 28일

보고싶은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또박또박 편지를 써가는 나의 마음은 몹시 울렁거렸다.

…

나는 절대로 울고만 있지 않을래요. 아버지장군님, 나는 빨리 커서 아버지장군님의 몸가까이에서 안녕과 만수무강을 지켜드리는 친위전사, 의학박사가 될래요.

…

이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에게는 한분의 아버지장군님밖에 안계셔요. 아버지장군님.

아버지장군님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과 온 나라 어린이들을 다 돌보아주셔야 할 귀하고 또 귀하신 몸이예요.

밥도 많이 잡수시고 잠도 꼭꼭 주무셔주세요. 우리집의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

이것이 어찌 이 학생의 혼자의 심정이라고만 보겠는가. 그것은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심정의 반영인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특히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 화학 공업부문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이 이룩됨으로써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빛나는 성과가 달성되였다.

농업부문 일군들도 풍년작황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은 조선서해안의 곡창 연백벌농민들은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은 농장길을 더는 걸으시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밑에 벌이 생겨 처음보는 대풍을 마련하였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도 앞장서나갔다.

최근 새 세대 청년들과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이 농촌과 탄광, 광산 등 어렵고 힘든 초소로 자원하여 수많이 진출하였다.

그리고 인민들은 군대가 강해야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성심성의로 하였고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하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지켜냄으로써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웠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들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다.

이 세상에 이런 혼연일체의 위력을 당할 힘은 없다. 이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조선은 또다시 새로운 력사창조의 길에 들어섰으며 우리 혁명은 자기의 힘찬 진군길을 계속해가고있다.

그 길에 천만산악이 가로놓이고 만리격강이 앞을 막는다해도 우리 혁명은 끄떡없이 전진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모든 념원은 이 땅에 더욱 활짝 꽃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갑송

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	미 합 중 국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미 합 중 국 순 회 대 사
강 석 주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당창건기념탑이 건립된다

1995년 10월 10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이하여 평양에 당창건기념탑이 건립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마주 바라보이는 만수대언덕과 한 축상에 자리잡은 대동강반의 문수거리에 25만여m²의 부지면적을 차지하고 건립되는 당창건기념탑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력사적대기념비이다.

당창건기념탑은 70m직경의 원형기단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50m직경의 띠모양으로 된 원통형구조물우에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마치와 낫과 붓을 높이 추켜든 모습을 형상한 화강석탑들이 각각 50m높이로 세워지게 된다.

탑들을 높이 떠받드는 띠모양의 원통형구조물벽면에는 우리 당의 투쟁력사가 집약적으로 부각되며 기념탑주변의 넓은 구획은 하나의 공원으로 꾸려지게 된다.

이 대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5만m³의 굴착작업과 4만 5,000m³의 콩크리트치기, 900여톤의 철근 가공과 조립, 2만 5,000m²의 돌 가공과 조립, 근 20만m²의 원림조성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1년동안에 끝내야 한다.

지난 9월 30일, 건립되는 당창건기념탑 착공식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 중에서

다홍왜에서의 론쟁

…

반《민생단》투쟁의 사나운 회오리가 동만의 유격구들을 한창 휩쓸고있을 때 나는 병석에서 일어나 다홍왜로 떠날 차비를 하였다.

수십일간이나 내처 앓던 몸이여서 회의에 참가할만한 기력은 없었으나 내가 요구한 회의이니 반드시 가야 하였다. 그런데 4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비롯한 군대내의 많은 동무들이 내가 다홍왜로 떠나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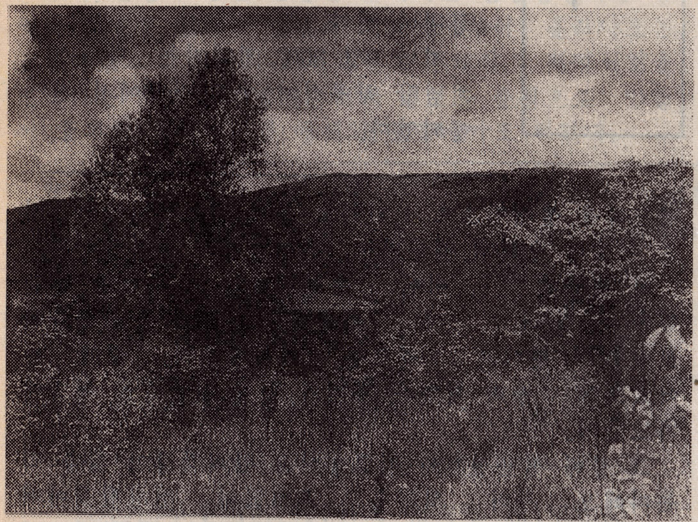
《대장동지, 만주성당에서도 파견원이 오고 공청만주성위에서도 파견원이 왔다는데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대장동지편에 있다고 해도 어쨌든 대장동지는 혼자이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4중대 정치지도원이 나에게 넌지시 한 말이였다.

전령병인 오대성까지도 나의 다홍왜행에 대해 우려하였다. 다홍왜회의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고 축복의 인사를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를 고무해주는 락천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들이 나의 출발을 앞두고 그처럼 불안해한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1935년 2월이면 만주성당이 동만 각급 당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전당을 볼쉐위크화하기 위하여 숙반공작과 좌우경을 반대하는 량조전선의 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여 당내에 침입한 반혁명분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파쟁주의, 민족주의, 사회개량주의를 청산구축할데 대한 비밀지령을 하달한뒤였다. 이 지령이 하달된후 동만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반《민생단》투쟁이 더욱 극좌적으로 무자비하게 전개되였다.



민족배타주의자들과의 론쟁이 치렬했던 다홍왜회의장소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나와 좌경분자들사이의 론쟁은 그때까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인 형태로 진행되여왔다. 하지만 당과 군대, 공청의 주요간부들이 다 모이는 다홍왜회의에서는 론쟁이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첨예하게 벌어질것이다. 좌경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 하나라면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10이나 20명도 넘을수 있다. 《민생단》문제가 일정에 오르면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대체로 다 입을 봉하고 아닌보살을 하는것이 전례이니까. 그런즉 나는 좌경의 포위속에서 전체를 향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것이다. 론쟁은 나를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되고 회의장은 나를 매장해버리는 재판장으로도 변할수 있다. 《민생단》이라고 하면서 나를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장해버리려는 극단한 시도도 있을 우려가 없지 않았다.

전우들은 바로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있었다. 그들은 《숙반》을 주관하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사정없는 돌심장들인가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전우들은 사색이 되여 다홍왜로 가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길을 떠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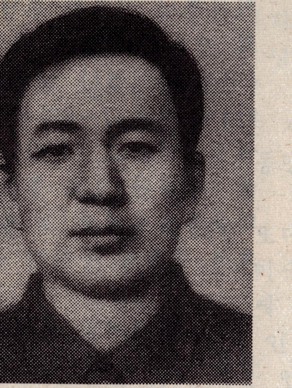
나는 오대성과 다른 한명의 전령병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가 시작된지 이틀만에야 다홍왜에 도착하였다.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엄한 경호조치가 실시되고있는 제8구 농민위원회 사무소에서 만주성당 파견원 위증민이 왕윤성, 주수동, 조아범, 왕덕태, 왕중산을 비롯한 동만당단특위의 간부들과 함께 나를 맞아주었다. 이 너렁청한 사무소건물에서 바로 중국사람들이 동만당단특위련석대회라고 규정한 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회의를 다홍왜회의라고 부르고있다. 한때 일부 력사가들이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한 명명이라고 볼수 없다.

다홍왜회의는 약 10일가량 진행되였다. 회의도중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있어 출석자의 수자는 고르롭지 못하였다. 대부분은 중국사람들이였고 조선족출신으로는 나와 송일, 림수산, 조동욱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뿐이였다고 생각된다. 조동욱은 회의 전기간 중국말을 잘 모르는 조선족간부들을 위해 통역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는 동만당 특위위원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다홍왜에서 회의가 소집되게 된 동기는 공청 만주성위 순시원의 자격으로 간도지방의 사업을 료해하러 내려왔던 종자운(쑈중)이 동만지방 조선사람들의 70%가 《민생단》이라는 허황하기 그지 없는 보고를 성당조직에 제출한것이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만혁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주성당이 대표를 동만에 급파하여 수습책을 강구하려고 한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론쟁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였다.

론쟁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것은 종자운이 보고에서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70%,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협의자들이며 유격구가 《민생단》의 양성소라는 종래의 견해를 되풀이한 순간부터였다.



김일환

회의분위기는 종자운의 보고를 지지하는데로 기울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숙반공작위원회를 강화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민생단》숙청은 혁명으로 대내의 반혁명을 포위섬멸하는 특수전이라는 미사려구를 늘어놓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민생단》이 뿌려놓은 씨종자들을 보다 철저히 무자비하게 뿌리채 뽑아내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몇마디 질문을 들이대였다.

동만에서 활동하는 조선혁명가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면 이 회의에 참석하고있는 나와 기타 조선동지들도 다 《민생단》으로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 《민생단》과 마주앉아 회의를 하는가? 우리가 《민생단》이라면 무엇때문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 않고 여기에 불러다놓고 정치를 상론하는가?

동무들이 찍어놓은 그 수자속에는 싸움터에서 전사한 혁명가들도 포함되는가? 만일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항일전쟁에서 목숨을 바친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본놈들이 자기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것으로 되는데 그들이 모처럼 키워놓은 《민생단》원들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 회의장을 호위하고있는 1중대의 80~90%도 《민생단》으로 보는가?

이 질문으로 하여 술렁거리던 회의장안에서는 갑자기 우리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차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집행석에 앉아있는 위증민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다 알다싶이 어떤 물질이든지 본래의 구성요소와 다른 요소가 80~9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학이다.

동만에 사는 조선사람의 70%가 〈민생단〉이라는것은 로인들과 아녀자들을 제외한 조선족청장년들 전부가 〈민생단〉이라는 말과 같은데 그렇다면 동만에서는 〈민생단〉이 혁명을 하고있으며 〈민생단〉이 자기 상전을 반대하는 혈전을 벌리고있단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동만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이것 역시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그들이 만일 〈민생단〉이라면 무엇때문에 3년동안이나 만성적인 봉쇄상태에 놓여있는 유격구들에서 엄동설한에 집도 없이 입을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적들과 힘에 겨운 싸움을 하여왔겠는가.

조선혁명가들의 80~90%는 고사하고 그 십분의 일인 8~9%만 〈민생단〉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자리에서 마음놓고 회의를 할수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의장주변에서는 지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1중대가 완전무장을 하고 우리들에 대한 경위임무를 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이자리에는 몇해째 적들이 소멸하지 못해 애를 쓰는 동만지방의 이름난 혁명가들과 지도핵심들이 다 모여있다.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1중대성원들도 거의나 〈민생단〉이겠는데 그들이 좋은 총기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우리를 습격하여 일망타진하지 않는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모두가 《민생단》이라는 생억지의 주창자들은 이 물음에도 역시 함구무언이였다.

《1중대는 원래 당신들이 〈민생단〉중대라고 선포했던 불우한 중대이다. 우리가 20일가량 중대에 직접 내려가서 료해해본데 의하면 중대전원을 〈민생단〉으로 볼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20일간의 지도검열과정을 통해 1중대는 모범중대로 되였고 여기서 7중대가 새롭게 태여나기까지 하였다.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된 결과를 놓고보더라도 동만유격구들에 사는 조선사람들이나 조선혁명가들의 대부분이 〈민생단〉이 아니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되고있다.

보고에서는 유격구를 〈민생단〉의 양성소라고 하고 당, 단 조직도 〈민생단〉조직이라고 하면서 리용국은 〈민생단〉 왕청현 당책임자, 김명균은 〈민생단〉 왕청현 조직및 군사책임자, 리상묵은 〈민생단〉 동만당 조직책, 주진은 인민혁명군 1사 〈민생단〉 책임자, 박춘은 인민혁명군 〈민생단〉 참모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동만당이나 왕청현당이나 인민혁명군 1사를 모두 〈민생단〉 조직으로 보아도 되겠는가? 동만당간부들을 〈민생단〉의 조종자, 지도자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는가?》

청중은 이 물음에도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성당 파견원으로서 이 투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종합분석하고 평가할 사명을 걸머진 위증민 한사람만이 당, 단 조직자체를 《민생단》조직으로 보는것은 착오이며 부분과 전체는 반드시 구별해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하여 장내에 조성된 긴장도를 약간 늦구어놓았다.

나는 동만인민의 대부분을 《민생단》이라고 락인하는것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며 이 견해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시정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즉석에서 조아범의 반격을 받았다.

《당신은 무턱대고 〈민생단〉이 없다고만 하는데 그것은 주관이다. 감옥들에는 지금 수백명의 〈민생단〉협의자들이 갇혀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민생단〉에 들었다고

자백하고있고 자기 손으로 자백서까지 쓰고있는데 그 자백과 자백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 당신은 이런 증거자료들을 인정하지 않는단말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자백이나 자백서라는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증거자료들이라는것이 대부분 고문장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받아낸것들이기때문이다. 나는 감옥에 가서 자백을 했다는 혐의자들을 수십명이나 만나보았는데 자기의 자백을 인정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나는 당신들의 그 증거자료보다 사업과 생활을 통해 발휘된 그들의 충실성을 더 믿는다. 솔직히 말해보라. 당신들이 자백과 자백서를 어떻게 받아냈는지.… 당신들이 〈민생단〉이라고 몰아대는 혐의자들의 대다수는 〈숙반〉의 집행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육체적고통에 견디지 못해 가짜자백을 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지금 〈민생단〉 아닌 〈민생단〉을 마구 만들어 내고있다.》


리웅걸

이때 조아범이 《부뚜이!》(《아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 《부뚜이!》라는 말에 나는 그만 신경이 한껏 팽팽해졌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조아범이 감히 이자리에서 《아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가?

《무엇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다.

《간도의 조선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주시하고있다. 당신이 직권을 악용하여 사람잡이를 망탕 했기때문이다.

안도유격대 정치위원 김정룡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화룡현당 서기 김일환은 누구 손에 죽었는가? 오늘 이자리에서 솔직히 대답해보라. 길림시절의 조아범은 포악하지도 않았고 탐위욕도 없는 사람이였다. 김일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분해서 울었다. 그 사람이야 당신의 혁명선배가 아닌가. 당신이 그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죽이기까지 한단 말인가.》

나는 김일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달프게 조상한 전우의 한사람으로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

다홍왜회의에서는 간부문제에 대한 론쟁도 치렬하게 벌어졌다.…

회의가 심화됨에 따라 나와 좌경분자들사이의 론전은 더 치렬해졌다.…

하루 세끼씩 콩죽을 먹으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론쟁을 하다나니 나는 뼈만 남은 몸이 되였다. 하루종일 회의를 하고 밤늦게 숙소에 돌아와 앓다가도 아침이 되면 또 론쟁마당에 나가야 하였다. 단독으로 여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나에게 결석이라는것은 있을수 없었고 기권이라는것도 있을수 없었다. 나는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간도의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운명을 위해서 싫건좋건 론쟁마당에 뛰여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회의에서 토의된 또하나의 론쟁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추켜들고있는 민족해방의 구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다홍왜회의에서 시작된 론쟁은 그해 3월에 열린 요영구회의에 와서도 계속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도 의견상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미결로 남게 되였다.

우리는 두 회의의 론점에서 핵으로 되여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하여 위증민과 공청동만특위 간부인 윤병도를 모스크바에 보내였다.

《민생단》문제로 하여 파생된 간도지방의 혼란은 일종의 악몽과도 같은것이였다.

좌경분자들은 무분별한 《숙반》운동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힘들게 축성해놓은 혁명의 기초를 거의나 허물어버리였다. 그러면 그들이 죄다 《민생단》이였단 말인가. 아니다. 적들의 문건에는 《민생단》이 겨우 7~8명이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7~8명을 색출해내려고 《숙반》운동은 2,000여명의 자기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한것이다. 이것은 세계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희세의 비극으로서 우매와 무지와 몰상식의 극치였다.

…

다홍왜에서의 론쟁의 의의는 바로 리웅걸과 같은 사람들의 경력에서 《민생단》감투를 벗겨준데 있다. 이 회의의 론쟁과 그후 국제당이 내린 결론으로 하여 처형된 사람들도 무죄로 판명되였다. 육체적생명은 회복될수 없었지만 정치적생명은 부활되였다. 이 회의의 다른 하나의 의의는 일제의 음험한 모략이 얼마나 간악하고 지독했는가 하는것과 그에 롱락된자들의 정치적졸렬성을 고발함으로써 좌경분자들의 정치적쿠데타에 자갈을 물리고 그 손발을 철저히 얽어맨데 있다. 그렇다. 《숙반》의 좌경화는 곧 높은 직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낮은 직권을 가진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단행한 정치적폭행이며 하향식쿠데타이다.

다홍왜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동만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사람들속에서 우리의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내가 이 글에서 《민생단》문제와 관련된 과거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추억하는것은 그런 비화를 빚어낸 장본인들을 구태여 만천하에 고발하자는것도 아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계산하자는것도 아니다. 이 추억은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모략과 간계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래일도 있을것이며 민족배타주의와 좌경분자들의 정치적졸렬성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후대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확립과 민족의 자주성과 관련된 교훈을 심어주자는데 있다.

…

인민의 충복으로


정춘실

우리 집 한방에는 세 벽면을 꽉 채우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이 있다.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온것은 1958년이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전천군 산골마을에 자리잡고있는 자그마한 우리 상점에도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일을 시작한 단발머리 처녀였던 나를 귀엽게 여기시며 인민들에게 잘 복무하자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말씀하여주시였다.

나는 상점일군들과 함께 군내의 직장들과 기업소 근 2,000세대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인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1961년 4월에 있은 전국상업일군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내가 토론을 끝내자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자신의 곁에 앉혀주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상업일군이라고 분에 넘치는 칭찬의 말씀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보증으로 나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안겨주시였다.

1964년 4월 또다시 우리 상점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로 상점을 번듯하게 잘 지었다고 평가도 해주시면서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에 우리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친히 감사문을 보내주시였으며 출판물들에 크게 소개하도록 하시고 예술영화의 원형으로도 내세워주시였다.

전천군상업관리소 일군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여러차례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여 상업봉사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나의 생일 50돐이 되는 1991년 12월에는 생일상을 보내주시였으며 전국의 상업부문에서 《정춘실운동》을 벌리도록 하여주시였다.

당의 은정깊은 손길아래 나는 《**김일성**훈장》수훈자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2중로력영웅으로 한개 군의 상업을 맡아보는 일군으로 자라났다.

1991년 9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상업관리소를 찾아주시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였다.

그런데 그 기념사진이 그이를 모시고 찍은 마지막사진으로 될줄이야.

나는 우리가 일을 더 잘 하지 못해 세상에 한분밖에 안계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잃게 되였다는 죄책감으로 하여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나는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더 빛나게 꽃피워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일에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다.

자강도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정 춘 실

본사기자 남용일



주민봉사를 더 잘 하자고 이야기하는 정춘실

흥성거리는 상점



고국방문


시중호차집에서

오르자 금강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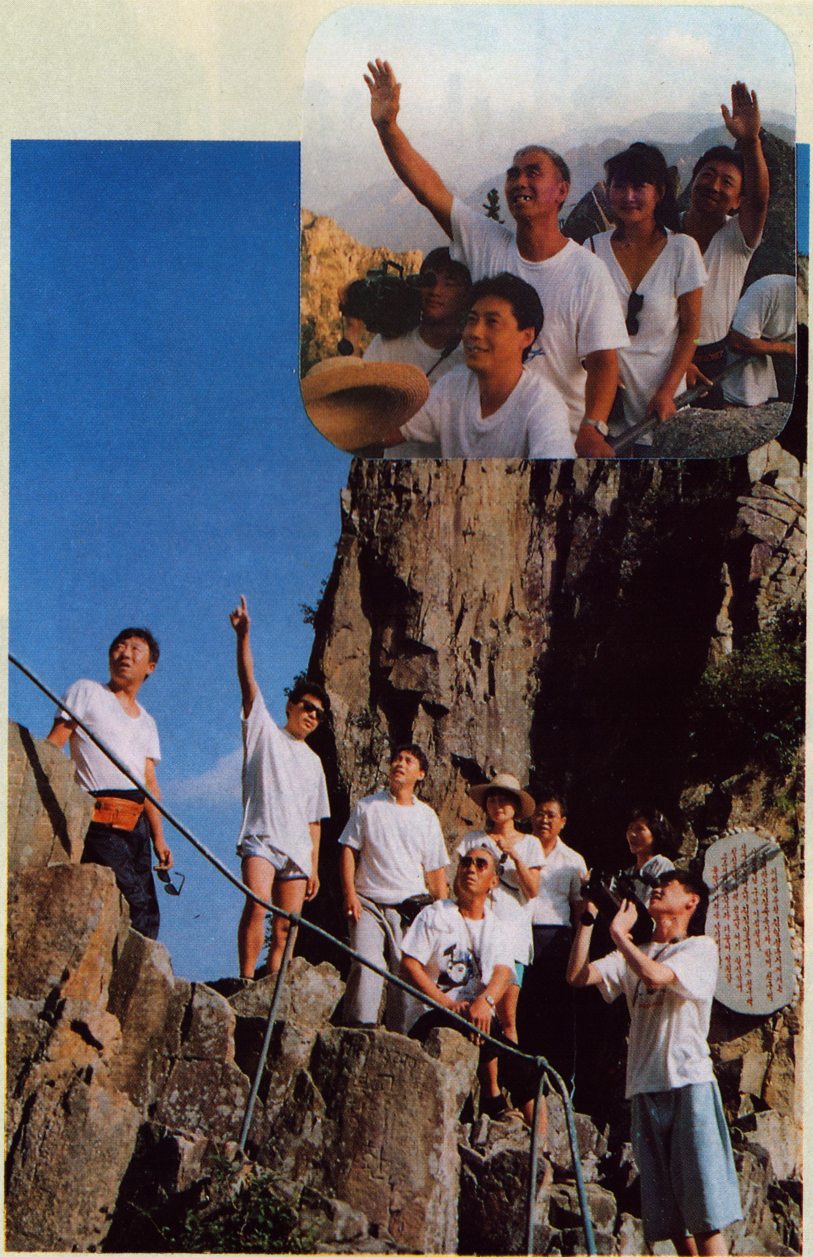


구룡연으로 오르는 길





구룡폭포앞에서



천선대에 올라



더 맑은 물이 있을가?

본사기자 남용일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

지금으로부터 3년전 우리 당과 전체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강철의 의지,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걸출한 군사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동포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사회계는 **김정일**동지께서 군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

서울에서 있은 시국토론회장에서 윤 아무개 재야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 창조된다.

오늘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북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여 세계적인 선망의 대상으로 높이 부상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과시 **김정일**장군, 그이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남조선 괴뢰군의 한 장교는 《**김정일**장군님은 인민군을 일사불란의 무적의 강군으로 육성하신 천하명장》이시라고 칭송하였으며 경상북도 칠곡군의 한 농민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신것은 영광중의 영광, 행운중의 대행운》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광주의 한 주민은 《민족의 향도성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무력강화에 힘을 넣고계신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1950년대의 패배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할것이며 뼈도 추리지 못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 사는 한 재야단체 인사인 박 아무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부당한 《핵사찰소동》을 일으키며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온 일촉즉발의 정세하에서도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초대국인 미국의 이북압살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하게 꺾어버리신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온 민족이 하늘처럼 우러러모시고 받들어야 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고 민족의 영명한 향도자이시다.

인도신문 《인디안 타임스》는 《**김정일**, 그이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군사의 영재로서의 명성을 떨치신 **김일성**주석의 사업을 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시는 과정에 주석께서 지니신 백전로장의 기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였으며 당과 국가,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맡아보시면서 군사의 령장으로서 인민무력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 업적가운데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군사 사상과 리론, 전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중심의 군사학을 정립하신것이다.

※

그이께서는 전군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울데 대한 사상,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빈틈없이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인민무력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 전략전술과 전법을 내놓으시였다. 지금 조선인민군안에 당의 령도체계가 확립되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미풍이 차넘치고있는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결과이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운동 총비서 브란꼬끼따노위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책동에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는 대담하고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시였으며 조선의 군사기지들에 대한 〈특별사찰〉 소동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로 맞서게 하시였다.

엄혹한 정세하에서 이와 같은 대담한 조치로 대응하는 용단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김정일**원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다.

김정일원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기에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그 어떤 책동도 물리치고 사회주의위업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것이다.》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기술대학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보고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각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건설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조선인민군을 세계적인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장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는 령장의 슬기와 풍모를 천품으로 타고나신 군사의 영재이시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주체적혁명무력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군사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에는 없는것이 없다.

위대한 군사사상가이신 그이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을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들도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의 지도자

요람

언제인가 텔레비죤화면으로 평양산원에서 여섯달만에 태여난 아이가 정상아보다 더 실하게 자란 모습을 방영한 일이 있다.

예로부터 팔삭동이에 대한 말은 들었으나 륙삭동이가 있다는 말은 이때 처음 들은지라 사람들은 텔레비죤수상기에 비쳐진 그 실한 아이를 보고 모두 놀라서 혀를 찼다.

그 아이가 바로 평양산원의 현대적인 보육기에 의해 사경에서 구원되였고 또 그 보육기속에서 실하게 자란 아이였다.

하다면 이 보육기에는 어떤 숭고한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산원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들을 보시다가 급히 해당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들어서자 명세서에 표시하여놓은 어느 한 항목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보육기를 왜 이렇게 대수를 적게 예견하였습니까?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 보육기로 말하면 달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한 조산아, 미숙아들을 태내와 꼭같은 조건에서 키우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 보장은 물론 산소와 영양공급까지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여있는 고도로 현대화된 설비로서 그 값이 엄청나게 비쌌다.

망설이던 일군들은 보육기를 더 사오자면 외화한도가 초과될뿐아니라 이미 예견한 대수를 가지고도 평양산원에서 태여나는 조산아들을 능히 다 키울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아닙니다. 더 사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이들을 위한 일에 돈을 아껴본적이 없습니다.

외화걱정은 말고… 더 사와야 하겠습니다.

산원설비는 필요한것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돈을 계산해도 됩니다.

보육기는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기계이기때문에 그렇게 빠빠하게 가지고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출생하는 조산아들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에서 태여난 위급한 조산아들과 삼태자들도 다 데려다가 보육기안에서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을 채워 낳은 아이들가운데서도 약한 아이들은 보육기에 넣어서 키우면 산모와 아이들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야 없지 않습니까? 돈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동무들은 많이 구해오기만 하시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설비명세서는 그 즉석에서 고쳐졌고 값이 비싸서 사기 어려운 수많은 보육기가 들어오게 되였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완공된 평양산원을 현지에서 돌아보시다가 새로 들여다 설치한 보육기들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만족한 미소가 넘쳐흘렀다.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설명하시였다.

이것이 조산아집중치료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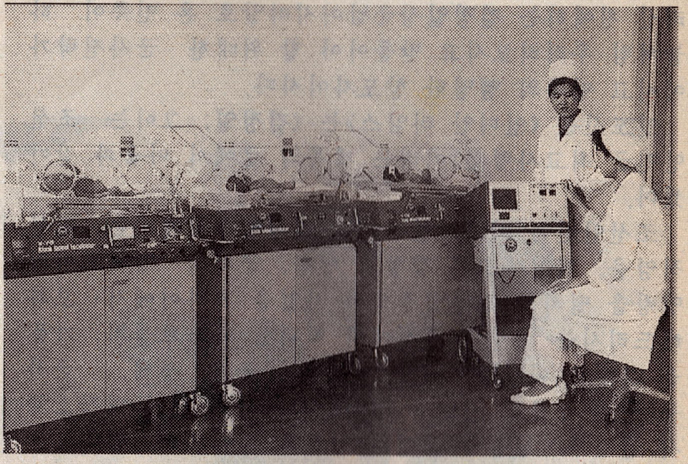
팔삭둥이를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키웁니다. 생활에 필요한 온도와 산소는 자동적으로 보장하게 되여있습니다.

눈길이 모자라게 줄지어 늘여놓은 보육기들을 흡족히 바라보시는 그이앞에서 일군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한 일군은 구라파의 어느 규모가 크다는 산원에 가본 일을 상기하였다. 그 산원에는 보육기가 불과 몇대밖에 없었는데 비싼 보육기를 그만큼 놓은것도 대단하다고 그 나라 보건일군은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평양산원에는 그 보육기가 이처럼 즐비하게 늘어서게 되였던것이다.

바로 이 사랑의 보육기로 오늘 전국각지의 조산아, 미숙아들이 자라고있으며 결국 희귀하게도 륙삭동이까지 훌륭하게 자라고있는것이다.



보육기속에 있는 애기

수령님과 리극로

《한 인간의 운명도 한 나라의 운명도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워 참된 자유와 행복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구원될수 있고 아름답게 꽃필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도 우리 조선민족도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심으로써 잃었던 운명을 되찾고 진정으로 재생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정부의 초대 내각성원(무임소상)으로 활동한 민주인사 리극로가 쓴 일기의 한 토막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은 옳바른 령도자를 찾아 오랜 세월 헤매이던 리극로가 찾은 인생총화였다.

방황의 길에서

리극로가 남북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한것은 1948년 4월중순 어느날이였다.



그때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장을 받고 서울을 떠나는 그에게 사람들은 이북에서 당신을 어떻게 대해주겠는지 알겠느냐고 하면서 의혹과 불안스러운 말을 했다.

하지만 그가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주저없이 북행길에 오를수 있었던것은 무엇때문인가?

리극로는 1893년 8월 28일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듬실)의 의술을 겸하는 농군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명은 《찬》, 별호는 《고루》(오랜 루각이라는 뜻)이다. 고루란 세월의 눈비에도 퇴색과 썩음을 모르고 인생의 루각을 굳건히 세우려는 결심을 상징한것이다. 사대주의를 미워하던 그는 후날 자기 이름을 극로라고 지었다.

7살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자습으로 공부하던 그는 고학을 결심하고 18살나던 해에 집을 떠났다. 마산 창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열로 앓자 이불을 몸에 감고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의 향학열을 말해주는 일화이다.

망국노의 설음을 체험하면서 그는 조선독립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화계몽에 기대를 걸고 해외류학의 길에 나섰던 그는 중국 봉천성(지금의 료녕성)의 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고 의병운동이 바람직하여 홍범도, 리진룡 등 의병장들밑에서 혈투의 길도 걸어보았으며 그후 신식문명을 알면 무슨 방도를 찾을가하여 상해동제대학, 독일 베를린종합대학,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등에서 고학(정치경제학박사,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음)하였으나 독립의 방책은 찾을수 없었다. 그는 리동휘, 안창호, 신채호 등 수많은 선배들의 리론에 귀를 기울여보기도 하였다. 그때 《상해림시정부》총리로 있었던 리동휘의 통역으로 레닌을 만났던 그는 이렇다할 정치로선이 없는것으로 하여 망신만을 당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이 활동한다는 미국에도 건너가보았으나 목격한것은 하와이 산속에서 숯을 굽고 짜리졸임이나 만들어 팔며 친미사대로 독립을 구걸하는 리승만의 궁색한 처사였다. 손문, 레닌, 텔만, 피크 등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받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큐리부인과 같은 이름난 학자들과 마주앉아 망국의 설음을 통탄하기도 하였다. 세계의 영웅호걸들과 성지들을 찾아 떠돌아다녔지만 그는 자기를 이끌어줄 옳바른 령도자를 끝내는 만나지 못하였다. 한때는 브류쎌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대회에 국내대표로 독립요청서를 가지고 참가하였으나 얻은것은 실망과 좌절감뿐이였다. 어느것도 믿을것이 못되였다.

(조선을 이끌어줄 령도자는 정녕 없단말인가?!)

20여년간의 방황의 길에서 그는 식민지민족의 슬픔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였다. 그에게 남은것이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제는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이라도 지켜보자는 열망뿐이였다. 그는 1929년 1월초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량심적인 어학자들로 《조선어학회》를 뭇고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무렵 그는 애국렬사 안중근에게 륙혈포를 넘겨준 김창걸(그후 일제에게 잡혀 희생됨)의 막내딸 김공순과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 심한 재정난으로 하여 조선어학회활동은 처음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그는 선배들이 기념으로 준 망원경과 사진기는 물론 가산을 다 팔았고 나중에는 안해의 금반지, 비녀, 금귀이개까지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금반지만은 간수해두자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안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다 내 민족을 위한 일인데 울지 마오. 내 이제 독립되면 당신의 열손가락 전부에 금반지를 끼워주겠소.》

나중에는 민족어를 지키기 위한것이 《죄》로 되여 그는 함흥감옥에 끌려가 3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였다. 놈들의 고문으로 하여 그의 손톱과 발톱은 다 빠지고 어깨까지 상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그의 애국심을 꺾지는 못하였다.

해방후 감옥에서 나온 그는 병치료를 받을새도 없이 새로운 열정으로 조선말사전편찬사업을 힘있

게 벌리는 한편 《조선진민회》를 골간으로 《민주주의독립전선》을 조직하였고 후에는 홍명희, 김규식과 함께 《민족자주련맹》결성에 발벗고 나서기도 하였다.

리극로가 일제의 박해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낼수 있었던것은 1930년대부터 최일천(《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 편집자)을 통해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보천보전투소식을 알게 된 후부터였다.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오른 그때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장군님은 그의 운명의 구세주였던것이다.

(아, 그분을 언제면 만나뵈올수 있을가.)

그의 간절한 소원은 공화국북반부에 안긴후에야 성취될수 있었다. 허나 그는 그때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가 자기를 기다리고있었는지를 다는 알수 없었다.

《나는 북에 남겠소》

리극로는 1948년 4월 21일 남북련석회의가 열리는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오매불망 그리던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았다.

(이분이 바로 희세의 위인, 우리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이시구나!)

미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는 그를 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일제의 고문으로 몽드라진 험한 손을 따뜻이 잡아 어루만져주시고는 위로도 하시고 애국지성의 흔적으로 평가도 하시면서 동행한 수원들에게 리극로선생은 인터나쇼날 국제가를 우리 말로 처음 번역한분이라고, 그가 일제의 언어동화정책으로부터 모국어를 지켜내기 위해 《조선어학회》를 조직한것만도 높은 존경을 받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는 그때부터 장군님의 인품에 매혹되였다.

회의가 열리여 주석단에 앉은 그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으로 지금 우리 조국앞에는 가장 엄중한 분렬위기가 닥쳐왔다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주의주장과 신앙의 차이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조선사람이 굳게 뭉쳐 거족적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장군님의 연설을 접하였다.

민족의 대단합!

머리가 탁 트이고 가슴이 쩡 열리는 말씀이였다.

(저분이 듣던바 그대로인 통일정부를 이끄실 우리 민족의 참다운 령수이시구나?!

이제는 됐다. 내 남은 여생 오직 장군님만을 따라가리라.)

그때 그는 이름난 《위인》들을 만나려고 순례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도 일찌기 명성높으시였던 자기 민족이 낳은 위인을 늦게야 만나뵈운 뼈저린 자책으로 가슴을 쳤다.

남조선에서 온 정객들이 서울로 나갈무렵 그는 장군님의 수하에 남을것을 결심하였다.

그후 리극로는 1948년 8월 력사적인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공화국이 창건된 다음에는 내각의 무임소상으로 활약하였다.

장군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그의 가족들이 평양에 도착한 어느날이였다. 그들의 숙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가족상봉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였으며 선생님의 소원대로 열개의 금반지를 부인의 손에 끼워드릴수 있지만 예로부터 결혼금반지는 부부일신이기때문에 하나만을 끼게 되여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식날자까지 새긴 금가락지를 리극로의 안해의 손에 끼워주기도 하시였다.

그 어버이사랑이 고마워 그날 리극로의 안해는 물론 온 가족이 격정에 넘쳐 울고 또 울었다.

리극로가 안해와 한 약속을 **김일성**장군님께서 지켜주신것이다.

(이 금반지는 우리 가정의 운명을 지켜준 조국의 품, 사랑의 수호신이다.)

그날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그후 내각성원, 어문학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장군님께 충효를 다하였다.

해방후 일부 사람들이 지금 쓰고있는 문자대신 여섯자모만 가지고 우리 글을 쓰자는 《6자모설》을 들고나왔을 때였다. 장군님으로부터 문자개혁의 부당성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은 그는 그것을 명심하고 력사가 오래고 문자가 아름답고 표현력이 풍부한 우리 말을 더 잘 다듬어 발전시키려고 더욱 애썼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기때문에 문자개혁은 조국의 영구분렬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문자개혁은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통일관, 애국애족의 사상을 접한 그는 그때 얼마나 감탄했던지 모른다.

장군님을 받들어 더 일하고싶었지만 나이는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환갑나이에 이르자 그는 속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포성이 멎은 1953년 8월 어느날, 그의 환갑상을 차려주신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는 그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장의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그는 원사, 박사로서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사전편찬사업을 마음껏 해보다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평양의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

그의 맏아들 리억세를 비롯한 6남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자기의 흔적이나마 남겨볼 생각으로 이역만리를 헤매이던 10대의 소년시절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리극로는 생의 마지막날까지 일기를 썼다.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 쓴 수십권의 일기장은 지금 어느 한 기관에 보관되여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칭송한 심장의 기록장이다.

1978년 9월 5일 림종의 날에도 그는 일기를 남겼다.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을 그의 안해가 받아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나는 동서고금의 철학을 다 들여다 본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체험자, 세계의 위인을 수없이 만나본 위인증견자로서 말한다. 너희들은 무조건 수령님만을 믿고 주체사상을 따라가거라. 인생이 그 사상, 그 철학을 따르면 륭성번영하고 안따르면 망할게다. 력사는 이제 반드시 그것을 확증해줄게다.》

력사는 리극로의 예언대로 흘러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후 1930년대부터 변함없이 수령님을 흠모하여 따라온 그의 인생루각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로명준

수필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혁명렬사릉!

무성한 숲의 설레임도 잠자는듯 숙어들고 태질하듯 지나가던 바람결도 잔잔해지는곳, 조국의 광복위해 한몸바친 혁명렬사들의 숭고한 넋이 깃들어있는 여기 대성산으로 오늘도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다.

12월 24일,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77돐을 맞으며 우리들도 언제나 못잊어 가슴속에 새겨져있는 자애로운 그 영상을 그리며 렬사릉의 화강석계단을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가슴미여지는 슬픔을 안고 오늘도 변함없는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반신상을 우러르며 발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났던 항일의 혈전을 헤쳐온 한 녀투사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었다.

맵짠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듯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 돌처럼 굳어진 투사, 생화꽃다발들이 쌓이고 덧쌓이는 대리석단우를 어루쓸며 그는 그 무엇인가를 입속으로 자꾸 뇌이고있었다.

한참만에야 일어선 투사는 묻는듯한 우리의 시선에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놓으시라고. 어버이수령님은 가시였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될것이라고…》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 투사의 주름진 두볼우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순간 우리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그것이 어찌 녀투사 혼자만의 심정이랴.

투사와 함께 눈길을 모아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는 우리의 머리에는 녀투사가 취재의 길에서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1943년 3월하순 이른새벽,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따라 김정숙동지와 함께 걸으시였다. 한걸음, 두걸음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광복위해 한몸바친 혁명동지들을 추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앞에는 먼저 간 혁명동지들의 몫까지 합쳐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소, 나는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야 말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잘 키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신 어머님께서는 백두산에서 항일전의 가렬한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항일의 군복을 해입히시고 해방된 조국땅에서는 몸소 장군복을 해입히시며 그이를 백두의 정기와 슬기를 한몸에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대를 이어나갈 조선의 아들로 꿋꿋이 키우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이어 조선을 빛내이실것을 바라시는 어머님과 인민들의 념원과 기대를 언제나 새기시고 백두산밀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던 그 나날부터 뛰여난 예지와 슬기, 담대한 의지와 철의 담력을 지니신 조선혁명의 주인으로 성장하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게 령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력과 그이의 손길아래 인민의 락원으로 꽃핀 우리 조국의 모습에서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게 돌이켜보고 있는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듬어가는 우리 앞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있었다.

일찌기 항일전의 그 나날 백두광명성탄생을 만방에 자랑하며 민족의 대통운이 텄다고 소리높이 웨치던 항일의 로투사들로부터 당의 품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귀감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영생의 모습을 그리며 여기로 찾아오고있는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숙연히 바라보고있던 로투사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곧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그래서 그처럼 크나큰 슬픔을 안고도 이처럼 산악같이 일떠선게 아니겠어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계시여 김정숙동지의 한생의 념원은 빛나게 실현될것입니다.》

쏴쏴 소리를 내며 설레이는 대성산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하여 거연히 나붓기는 붉은 기폭이 우리의 시야에 안겨왔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아낌없이 바치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우리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의 화폭이였다.

추억에 남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량강도의 서북부 압록강과 장진강이 합쳐지는 합수목에 자리잡고있는 김정숙군을 찾았다.

걸음을 멈추다

새롭고 독특한 감을 주는 김정숙군의 소재지인 산간읍거리에서 우리는 1930년대의 마을의 일각을 그대로 볼수 있는것이 참으로 놀랍고 희한하였다.

《샘물터국수집》, 《석전양복점》, 《신파신발상점》, 《광선사진관》…

지붕에 동기와를 얹고 토벽을 한 그 모든것은 해방전 이곳이 압록강상류일대의 상업고장의 하나로서 천과 신발, 솜이며 내의, 문방구류들이 밀려들어 번창했던 그때의 광경을 방불히 그려보게 하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1937년 봄부터 가을까지 압록강을 자주 건너다니시면서 이곳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 남기신 불멸의 자욱이 있어 우리는 옛시대상앞에서 멈춘 걸음을 오래도록 뗄수가 없었다.

가슴이 부풀다

옛신갈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새로 형성된 김정숙군 읍의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와 아름다운 유원지.

압록강연안에 4~7층 씨리카트벽돌살림집이 우줄우줄 솟아 우리의 눈길을 끄는가 하면 학교며 병원, 문화회관이며 도서관, 편의봉사건물들의 다양한 건축미가 거리형성에 어울려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였다.

정연하고 규모있게 꾸려진 읍거리의 한쪽 장진강기슭을 찾으면 넓은 뽀트장이 나진다.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들로 에워싸인 넓은 뽀트장가운데 정각이 솟아 남녀청춘들이 모여들어 행복을 꿈꾼다.

붕—울리는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

한뉘 기차를 못타보고 팔순고개에 오른 이고장의 늙은이 내외가 북부철길이 놓이면서 전기기관차를 타고 혜산과 만포에 있는 증손자집으로 이웃집 다니듯한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을 부풀게 하는것뿐이다.

미래상이 그려지다

외지에서 흘러든 상품의 구매자들을 찾는 《싸구려!》 소리만 울리던 옛신갈파.

그때 이고장에 수수떡같이 벌거우리한 전등이라도 켤수 있는 전선줄이 드리웠던가.

오늘 김정숙군 사람들은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숱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기로 지방산업공장들을 돌릴뿐아니라 유치원이며 탁아소의 난방까지 보장하고있다.

이제 얼마 더 건설하면 일반주민살림집들에서 전기로 밥짓고 방안을 덥히게 된다.

읍에는 현대적인 설비로 꾸려진 많은 지방산업공장이 있어 여기에서 생산된 식료품이며 목재일용품, 갖가지 생활필수품이 군안의 수요를 보장하고 남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있다.

언제부터인지 이고장 사람들에게 우쭐해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에서 산다고 어깨가 으쓱.

오늘 자기네 고장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우쭐.

앞을 내다보면 볼수록, 그려보면 볼수록 행복이 넝쿨채로 떨어지는 전망이 있어 또 우쭐.

웃음으로 들을수 없고 웃음으로 넘길수 없는 현실이야기이다.

이 기쁨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것인가.

우리는 이곳 남산기슭의 푸른 언덕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그이께서 우리 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어 오늘의 행복상과 미래상이 있는것이라고 외우고 또 외웠다.

본사기자



김정숙군의 일부

완충기의 첫해를 보내며

1994년이 저물어가고 바야흐로 새해가 밝아오고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지금 력사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1994년을 돌이켜본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복잡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우리 나라를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변천된 환경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분석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앞으로 3년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며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들은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희망과 락관에 넘쳐 떨쳐나섰다.

올해 2월에 있은 전국농업대회이후 열린 전당당세포비서대회,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 전국축산부문일군열성자회의들에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30돐이 되는 해를 맞는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더욱 높았다.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에서는 논벼와 강냉이를 정보당 10톤이상 낼것을,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는 모내기를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도 더많은 철강재를 사회주의경제건설장들에 보내줄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의 금속공장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그에 화답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0고령임에도 잠시의 휴식도 없이 6월 어느날에는 평안남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과 평양시 대성구역협동농장을 찾으시고 농업생산을 늘일 방도들을 의논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서거하시기 이틀전인 7월 6일에도 인민생활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한 해당부문일군 협의회를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는 청천벽력같은 일로 우리 인민은 가장 비통한 슬픔과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으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그이의 유훈교시 관철에 떨쳐나섰다.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였던가를 어버이수령님을 잃은후에야 더욱 가슴저리게 느낀 우리 인민들은 그이께 생전에 다하지 못한 충효의 마음까지 합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갔다.

새해벽두부터 진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온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농사를 더욱 알뜰하고 깐지게 지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종합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비롯한 여러 부문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은 뜨락또르, 자동차,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으며 전국이 보충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우리 나라의 곡창 황해남도 연백벌에 있는 연안, 배천, 청단 군의 협동농장들은 벌이 생겨 처음보는 대풍을 이룩하였다.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도 땅이 꺼지게 농사가 잘되였다.

신발공업련합총국, 조선비단련합회사를 비롯한 경공업부문에서도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 천, 신발 등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였으며 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개선하였다.

대외무역부문에서도 수출원천이 적극 탐구동원되고 수출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강재, 세멘트 등 수출품생산이 늘어났다. 또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량의 비료취급을 할수 있는 라진항 1호부두비료중계장을 건설하는 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꾸리는데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석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이 발전하고 철도수송이 더욱 원만히 풀려 농업과 경공업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게 되였다. 신창탄광, 천성청년탄광, 2.8직동청년탄광을 비롯한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계획을 넘쳐수행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수십만톤의 석탄을 더 생산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성탄광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300톤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전력생산자들은 연소효률을 0.5% 더 높여 적은 석탄으로 더 많은 증기를 생산하였고 타빈직장은 한교대에서 근 3만키로와트의 전력을 계획보다 더 생산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수억키로와트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12월화력발전소 부분시운전이 진행되였다.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에서는 새형의 궤도전차와 지하전동차를 만들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용해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종전의 1.2배로 늘였고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는 더 많은 쇠돌을 캐내여 제철소들에 보내주었다. 평양철도국을 비롯한 철도부문에서는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많은 짐을 수송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새해 1995년을 맞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더 잘 관철할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있다.

견룡저수지

호수의 명승지로 이름난 견룡저수지는 평안남도 평원군 동부에 자리잡고있다. 이 저수지를 석암저수지라고도 한다.

견룡저수지는 면적이 6.04평방키로메터로서 남북이 긴 모양을 이루고있다.

호안선을 따라 아담하게 형성된 500메터의 거님길옆에는 각종 꽃나무들과 호수우에 가지를 드리워 실실이 춤추는 버드나무가 잘 조성되여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있다.

호수가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계절따라 색다르게 단장되는 은행나무, 밤나무 등 수십종의 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진달래, 봄맞이꽃을 비롯하여 철따라 피는 갖가지 꽃들로 꽃동산을 이루군한다.

또한 우거진 호수가의 숲속은 뻐꾹새, 꾀꼴새, 밀화부리를 비롯한 아름다운 갖가지 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더우기 아침해살을 받으며 물안개가 피여오르는 이른새벽 잔잔한 호수우에 물오리들이 날아들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저수지일대에는 소년단야영소와 휴양소가 있어 거기에 맞게 야영지, 휴양지, 명승지로 잘 꾸려져있다.

호수가의 풍치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지은 소년단야영소에는 가장 경치좋고 해빛밝은 곳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소년단야영소에는 음악실, 등산준비실, 수영준비실, 전람실, 미술실로 된 교양각 그리고 구락부, 소운동장, 야외무대, 두리의 풍치를 바라보는 전망대와 정각, 소동물사, 수영장 등이 꾸려져있다. 또한 호수에는 여러가지 형식의 뽀트와 유람선까지 갖추어져있어 야영생들의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여주고있다.

소년단야영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2키로메터 떨어진 호반에는 석암휴양소가 자리잡고있다. 그리고 저수지의 남쪽에는 유원지가 있다.

휴양소와 유원지가 있는 이 지대 호수기슭을 따라 규모있게 형성된 거님길들, 호수두리의 언덕들에 소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와 갖가지 과일나무들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과 철따라 피는 꽃들은 맑고 깨끗한 호수의 물과 잘 조화되여 특이한 풍경을 이루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석암에 친히 찾아오시여 야영소와 야영각을 비롯한 건물들을 지을 자리를 잡아주시고 학생들의 야영활동내용과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오늘 명승지로 이름난 이 호수가로는 곳곳에서 야영생들과 휴양생들,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국의 벗들도 수많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다.

본사기자 리운봉

토 막 소 식

△ 공업도시 함흥에 새로 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받아들여 전력생산과 관리운영을 자동화, 전자계산기화하게 되는 발전소는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창조물로 일떠서게 된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함흥지구의 대규모공장들에 전력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며 근로자들의 살림집에 대한 중앙난방화를 실현할수 있게 된다.

△ 예술영화들이 새로 나왔다.

최근 백두산창작단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새벽길》(영화문학 설주용, 연출 인민배우 정운모, 촬영《**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김련학)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만든 이 영화는 김형직선생님께서 3.1인민봉기이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쳐오신 혁명활동의 일부를 담고있다.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계급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 할 예술영화《어머니는 포수였다》(영화문학 렴양필, 연출 리상규, 촬영 김성만)를 만들어내놓았다.

이 영화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공화국영웅 리수덕녀성을 원형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서 주인공 리수덕이 자녀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교양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꽃속에 묻힌 견룡호반



호반의 일부



호수가의 아침



호반의 소나무들



야영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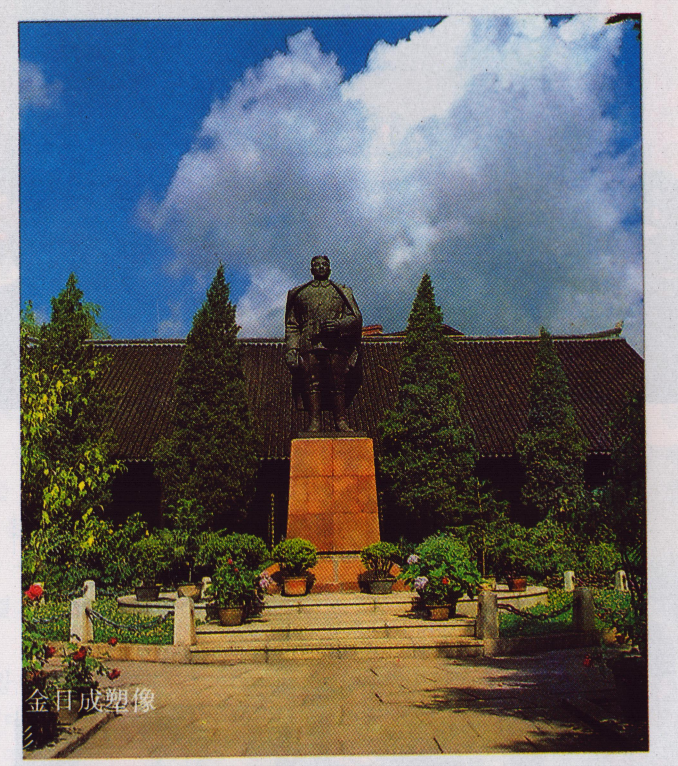
휴양소

본사기자 박강철

조중친선의 상징 -창덕학교



창덕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평양의 광복거리에 있는 창덕학교는 조중친선을 상징하고있는 자랑많은 학교이다.

이 학교는 1907년에 설립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빼앗긴 조국을 찾자면 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12살 어리신 나이에 중국 팔도구에서부터 천리길을 걸어 조국에 나오시여 1923년 봄부터 1925년 초까지 이 학교에서 공부하시였다.

창덕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는 학교에서 일하며 배우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있다.

이 학교는 수십년전부터 중국의 길림육문중학교와 친선관계를 맺고있다.

길림육문중학교 역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27년부터 1929년까지 다니시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시고 중국의 많은 애국지사들, 혁명가들과 친분을 두터이하신 학교이다.

이처럼 뜻깊은 연고관계에 있는 창덕학교와 길림육문중학교는 호상 거듭되는 왕래와 교류를 통하여 형제의 정을 나누고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있다.



창덕학교



창덕학교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길림육문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모임



친선의 정을 편지에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보내시는 선물이 정중히 전달되였다.



창덕학교친선대표단이 길림육문중학교 선물전시관을 돌아보았다.



창덕학교 생물표본실

친선의 정을 안고



조선을 방문한 우리 길림육문중학교대표단의 감회는 참으로 깊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는 우리 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교내의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 한장의 기와와 벽돌도 귀중히 여기고있다.

특히 《**김일성**주석독서기념실》의 앞정원은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려져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의례히 《**김일성**주석독서기념실》을 참관하고 중조친선에 관한 첫 개학강의를 받는것이 전통화되여있다.

교원들은 길림시절의 **김일성**주석의 혁명투쟁업적을 상세히 알고있고 이것을 학교의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며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주기를 즐긴다.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김일성**주석독서기념실》을 잘 보존관리하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고있다.

길림성 성장동지와 길림시 시장동지는 자주 학교에 내려와 실태를 료해하며 학교를 잘 꾸리도록 지도하고있다.

성에서는 학교관리운영에 적지않은 자금을 돌려주고있다.

우리 길림육문중학교 교직원, 학생들, 간부동지들, 재중조선동포들은 해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성대히 기념하고있는데 이것은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들의 열화같은 마음에서 기인된것이다.

최근 몇해동안 창덕학교와 길림육문중학교사이에 대표단이 오가면서 서로의 리해를 깊이하고 중조 두 나라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있다.

평양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이다. 평양의 웅장화려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것이다.

김일성주석의 고향집,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우의탑 등의 참관을 통해 우리는 평양이야말로 영웅의 도시라는것을 깊이 느꼈고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우리는 3대혁명전시관참관을 통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큰 힘을 얻었다.

우리는 또한 조선의 교육이 당과 정부의 배려와 중시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우리 대표단은 가는곳마다에서 형제적환대를 받았으며 이것을 통해 중조친선의 뜨거운 정을 깊이 느꼈다.

나는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있다.

특히 주석께서 길림시절시기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감명깊게 회고하신 부분을 제일 인상깊게 보았다.

길림시절이 주석의 혁명적세계관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그이의 혁명적활동에서 큰 디딤돌로 되였다는것을 나는 잘 알게 되였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길림사람들이 길림을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가 본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당총지부
서기 조충신
1994. 6. 22

웃음주머니

네 선비

시를 몹시 좋아하는 네 선비가 있었다. 어느날 그들은 들놀이를 나갔다. 그들은 강건너편에 탑이 서있는것을 보았다. 선비들은 취흥이 도도하여 저마다 시구를 한마디씩 읊조리였다.

《멀리에서 보이느니 탑이로다.》

한 선비가 외웠다.

《가까이에서 보아도 탑이로다.》

두번째 선비가 읊었다.

《볼수록 탑이 분명토다.》 다음 선비가 덧붙였다.

《본래부터 저건 탑이로다.》 네번째 선비가 목청을 돋구어 외웠다.

네 사람은 서로 글귀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면서 제멋에 흐뭇해하였다.

《우리들이 이토록 입만 열면 시구가 술술 쏟아져나오니 성인이 분명하지요. 예로부터 성인은 단명이라 하였는데 우리도 오래 살지 못할건 뻔하지 않소?》 한 선비가 말하였다.

다른 선비들이 그 말을 듣고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서로 붙잡고 목놓아 울었다.

웬 로파가 그곁으로 지나가다가 왜들 그리도 슬피 우는가고 물었다.

선비들의 말을 다 듣고 로파도 소리내여 울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왜 우십니까?》 선비들이 물었다.

《나는 너무 웃다가 밸이 끊어질가봐 울고있소.》 로파가 겨우 대답하였다.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10)

인류사회는 참으로 간고한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어느 때에 가서 완전히 실현되게 되는가.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인민대중은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다. 그리하여 착취와 억압은 없어지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란 낡은 사회가 무너진 터전우에서 건설되는 사회이므로 낡은 사회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적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다.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람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이 계속되는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혁명을 계속해야 하는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가셔내고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사회의 주인이 가져야 할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도록 하는 혁명이며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수요에 의하여 분배하고 사람들을 온갖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뿐아니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도 없애기 위한 혁명이다. 그리고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혁명이다.

이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사람들은 자연과 낡은 사상문화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그런데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는 단번에 건설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로정을 거쳐 공산주의사회로 가게 되는가.

인민대중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우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그 사회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자면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고 력사를 거꾸로 돌려세우려는 반동분자들이 더는 준동하지 못하게 해야하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도 더는 사회주의제도를 좀먹을수 없을 정도로 극복되여야 한다. 그뿐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없어지고 생산력도 발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로동자나 농민만이 아니라 과거사회에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던 중산층까지도 사회주의제도가 참말로 좋다는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면 사회는 계급없는 사회가 되는데 이것은 사회발전에서 또하나의 전환점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더욱더 원만히 실현되게 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그들의 역할도 비할바없이 높아진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해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가 깡그리 없어지지 않고 또 로동이 생활상 1차적인 요구로 되지 못할뿐아니라 생활자료도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으리만큼 생산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술문화수준도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응당 가져야 할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인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

그러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인류가 도달하게 될 공산주의사회 즉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사상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 건전한 체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사회관계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완전히 개조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전체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가장 조화롭게 결합되며 개별적사회성원들의 발전은 곧 사회전체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또한 생산력이 높이 발전한 사회이기때문에 힘든 로동이 없는것은 물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도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착취사회가 만들어놓은 낡은 분업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자기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수 있다. 게다가 생산력이 높이 발전하였기때문에 생활자료가 말그대로 폭포처럼 쏟아져나와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이 원만히 보장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이다.

그것은 즉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이 대화원으로 만발한 인류의 영원한 봄이다.

귀국실현 35돐

지구상에는 자기가 태여난 조국을 등지고 이역땅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 공화국으로는 떠나갔던 동포들이 단군민족의 피가 끓는 심장을 안고 조국의 넓은 품에 계속 안기고있다.

지금으로부터 35년전, 나라가 없었던탓에 남의 땅에서 민족적멸시와 천대, 수모를 받아야 했던 재일동포들이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은 1959년 12월 16일은 귀국동포들에게 있어서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받아안은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날이다.

첫 귀국선이 청진항에 닻을 내렸을 때 세계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 《세계적인 인도주의사업》이라고 하였다.

재일동포들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현해란을 건너 이역땅에 끌려간 동포들과 그 후손들이다.

나라 잃은탓으로 일본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은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수난을 가셔버릴 방도마저 찾지 못한채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찌기 해외동포들의 참담한 생활처지를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55년 5월 25일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결성하여주시고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려는 동포들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앞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시고 마침내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은 일본땅에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온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에 와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행복을 안겨준 사랑의 길이며 광명의 길이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이 실현된후 귀국의 배길이 계속 이어진데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때 귀국의 배길이 막히게 되자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있고 귀국희망자가 있는 한 귀국협정은 무한정 연장되고 귀국사업은 계속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게 하시고 조일적십자회담을 성사시켜 귀국의 배길을 다시 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래왕의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제3국에로의 래왕의 길도 넓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어주신 귀국의 배길을 따라 그동안 187차에 걸쳐 10여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매에도 그립던 조국의 품에 안기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각이한 일터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있으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귀국동포들중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정무원을 비롯한 각급기관의 중요한 직책에서 그리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마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귀국공민들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서있으며 이 땅우에 높이 솟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도 그들이 쌓아올린 위훈과 업적이 빛나고있다.

바다건너 일본땅에 사는 재일동포들은 희망에 따라 사회주의조국에 돌아올수도 있고 또 조국방문의 기쁨도 함께 나눌수 있지만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과 남의 겨레들은 오가기는 고사하고 편지한장 전하지 못하고있다. 지금도 남조선에는 우리 겨레들이 《이민》과 《인력수출》의 간판밑에 이역만리에로 상품처럼 팔려가 무주고혼의 신세를 한탄하고있다.

나라가 동강나고 민족의 혈맥이 끊겨 반세기, 이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더없이 가슴아픈 일이다.

하기에 귀국실현 35돐이 되는 오늘 우리 인민들과 전체 해외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 90년대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함으로써 환희의 축포가 오르는 통일의 광장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실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김경희



일본에서 조국으로 귀국하는 동포들(제1차)

리상을 꽃피워준 품

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의 희망과 리상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수많은 귀국공민들중에는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김영광도 있다.

기쁜 눈물만을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마음의 기둥이며 삶의 빛이라고 한다.

하여 어머니들은 자식의 앞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며 자식의 성공을 자기 행복의 전부로 여기고있다.

1989년 6월 일본 오사까시 요도가와구 기가와히건시에서 살고있는 리정자동포가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있던 당년 36살의 아들 김영광이 이 연구소의 소장사업을 맡아하게 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도 온 세상을 안은듯한 행복감에 젖어있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다.

《영광아, 큰일을 맡아하기에는 나이도 경험도 모든것이 부족한 네가 큰 과학연구기관사업을 맡았다니 웬말이냐. 이 어머니는 너를 키우기가 어려워 8살되던 해에 알몸으로 조국에 보냈다. 그런데 조국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고 준박사로, 연구소 소장으로 내세워주었구나. 이 고마움을 생각하느라면 자꾸만 눈뿌리가 뜨거워지군한다. 영광아, 은혜에는 꼭 보답이 따라야 한다.…》

김영광소장의 소년시절의 한때가 일본 오사까시 죠도구 기다나가하마에서 흘러갔다.

가난은 7형제의 막냉이 영광이를 너무도 빨리 철이 들게 하였다.

그는 벌이를 나간 형들에게 따스한 아래목의 잠자리를 주려고 웃쪽 방바닥에 올라가 등을 옹송그리고 새우잠을 잤고 배가 고파도 부른체했다.

응석도 투정도 하지 않는 막냉이의 어른스러운 행동은 어머니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였다.

그믐밤과 같은 생활속에 가슴을 벅차게 하는 한가닥의 희망의 빛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어린 영광이의 비상한 기억력과 엉뚱한 사고력이였다.

돈이 있어야 인재를 키운다는 이 엄격하고 가혹한 요구를 절감하고 있는 김씨집안사람들은 한푼의 돈이라도 벌어 막냉이를 공부시켜보겠다고 아득바득하였다.

그러나 애절한 인정사정도 비집고들어갈수 없는 엄혹한 사회는 그들의 소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1961년 8월 영광은 제71차 귀국선으로 귀국하게 되였다. 가난은 그의 인생에서 아물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막냉이를 공부시켜보겠다고 꾸어쓴 돈이 리자와 변으로 새끼를 쳐서 그 빚을 갚아야 귀국할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어머니와 큰형, 둘째형이 일본땅에 떨어지게 되였던것이다.

모자간의 생리별, 사회악을 다 알지 못하는 영광은 그저 가난과 돈이 원쑤라고 저주할뿐이였다.

아름답고 선한것만을 마음에 차곡히 쌓으며 곧고 밝게 피여나야 할 그 시기에 악과 불의가 빚어낸 불행에 휘말렸던 소년 영광이는 웃음을 모르는 모진 아이로 되여버렸다.

40대중년기에 들어선 영광소장은 지금도 그때를 회고할 때면 눈굽에 고이는 물기를 감추지 못하군한다. 때로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다가 조용히 흐느끼기도 한다.

우울하게만 지내던 그가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나기 시작한것이 언제부터였던가.

귀국하여 황해남도 신천땅에 생활의 보금자리를 잡은 그해 겨울이였다.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영광은 고열에 떠서 자꾸만 어머니를 찾았다.

그때 담당의사며 간호원은 다심한 손길로 그를 돌봐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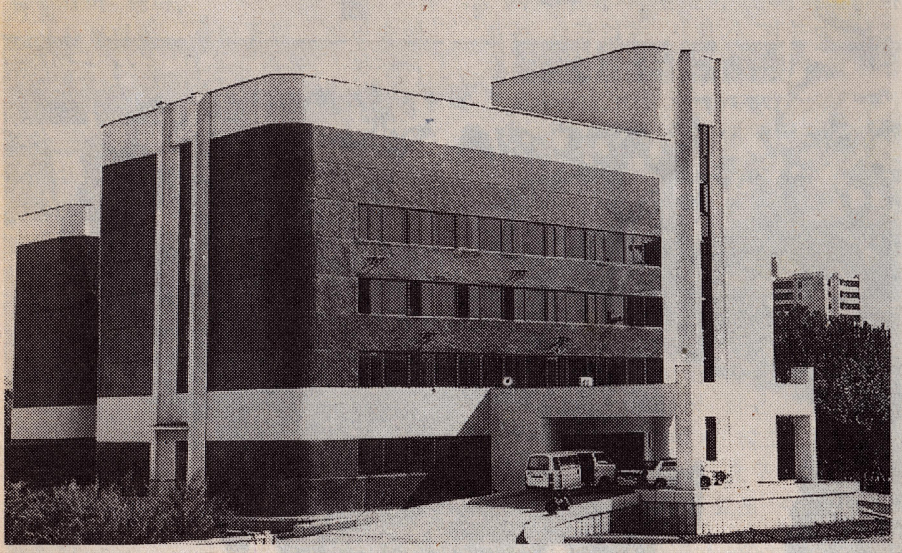
온 학급동무들이 입원실이 차고 넘치게 찾아와서 불룩한 주머니를 털어내며 내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네가 밥그릇을 다 비우기전에는 입원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그날 공부시간에 배운것을 학습장에 정리하여 줄 때 인정불모지에서 온 소년은 오열을 쏟고말았다.

무릇 조국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꾸밈을 모르는 어린이들의 샘물같은 마음에 밝게 어려있는 조국의 뜨거운것이 영광의 마음을 움직였던것이다. 인간애에 기초를 두고있는 조국에서 영광은 해주의학대학(오늘의 장수산대학)의 교문에 들어서게 되였다.

대학입학통지서를 받던 날 그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어머니, 오늘 이 아들은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달려가 알리기에는 어머니가 너무도 먼곳에 계시는군요. 자기 생의 빛이며 삶의 기둥이라고 이 아들이 헐벗어도 울고 못먹어도 울고 한평생 서러운 눈물만 흘려온 어머니, 오늘만은 기쁜 눈물을 흘려주세요.》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외경

그 어머니에 그 아들

1980년 여름, 김영광은 근 20년만에 조국방문차로 온 어머니를 만나게 되였다.

고요한 밤이나 꿈속에서 영광이가 그려본 어머니의 모습은 몇평방 안되는 집안살림을 유지하기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직심스레 일하던 그때의 그 모습이였다.

어머니와의 상봉에서 아들이 받아안은 놀라움과 충격은 어머니의 겉늙은 모습이 아니라 정신세계에서의 변화였다.

헤여질 때 40대에 있던 어머니는 60대에 이른 오늘까지 총련의 분회와 지부에서 녀맹사업을 해왔다.

점차 기억력이 삭막해가는 로년기에 이른 오늘도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해마다 총련에 보내주신 축하문과 총련일군들에게 주신 교시를 다 통달하고있었다.

두눈이 휘둥그래서 쳐다보는 아들을 보며 리정자동포는 범상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진심으로 받들고 관철하자면 우선 그 과업에 담긴 뜻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철해나가겠는가 거듭 연구해가느라면 자연히 외우게 되더구나.》

반동들의 준동으로 늘 시련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적구에서도 수령님의 뜻대로 민족의 권리와 조국통일성업을 위하여 꿋꿋이 싸워나가는 어머니.

길거리에서 뵈옵는 그 모든 어머니들과 다를바없는 평범한 나의 어머니의 마음속에 저토록 굳센 의지가 담겨져있다니.

그 어머니에 비추어보면 자기에게는 너무도 부족한것이 많은것만 같았다.

참된 넋은 대를 이어 심어지고 꽃이 피여야 한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며 일하리라.

마음의 어느 한 구석도 흐트러질세라 다잡으며 일해간 영광은 어린이영양관리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아 1986년에 준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는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의 소장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이태전 김영광소장은 동평양지구에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대담하게 내밀었다.

국가에서 맡겨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7천여평방메터의 면적을 가진 건물을 자체의 힘으로 짓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나라에서는 연구기지건설을 밀어주겠으니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통일거리건설 등 건설대상을 안고있는 나라에 더 부담을 줄수가 없다고 하면서 팔을 걷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과학연구사업과 건설, 유엔아동기구와 다른 나라 과학연구기관들과의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그에게 요구되고 그리운것이 시간이였다.

시간을 분초로 쪼개가며 일하던 그때에도 그가 선차로 초점을 박고 내민것은 과학연구사업이였다.

어느날 집단의 연구실태를 료해해가던 영광소장은 한 녀성과학자가 가치있는 종자를 쥐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던중에 부닥치는 난관앞에 동요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때 소장은 그 연구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과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한 녀성과학자가 뿌린 씨앗이 금방 껍질을 터치고 어린 싹을 내밀었소. 이제 잎을 펼치고 가지를 뻗치며 성공의 높이로 자라자면 준엄한 겨울도 넘겨야 하고 사나운 폭풍도 이겨내야 하오. 성공의 첫 시작, 출발로 되는 연약한 싹이 추위에 움츠리고 폭우에 시든다고 내버리면 그때는 끝장이요. 과학은 단순히 비상한 두뇌나 재능으로만 하는것이 아니요. 과학적신념, 이것이 과학자의 가치와 운명, 성공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라는것을 명심하시오.》

한창 건설이 진행되던 때에 그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조국방문으로 온다는 소식을 받았다.

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면 걱정할수 있으니 좀 건강을 돌보면서 일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헌신적복무로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수가 없었다. 그때 아들을 만난 리정자동포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이국땅에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고향산천이나 보고 친척이나 만나자고 조국에 온다고 생각지 말아. 우리는 조국인민들의 정신을 배우려고 온다. 이 어머니는 이번에 네 모습에서 조국인민들의 참모습을 볼수 있는것이 제일 기쁘다.》

오늘 동평양 새살림동에는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가 솟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최근년간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의 연구집단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특허권을 받고있으며 합동연구를 제기받고있다.

영광소장의 어머니는 80고령이지만 오늘도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족적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있다.

그는 지난 4월 25일 일본 오사까부 경찰당국이 반동들의 부추김으로 총련 오사까본부와 그 산하지부에 대한 강제수사놀음을 벌린데 항의하여 경찰당국에 300여차 전화를 걸어 수사가 위법이며 범죄라고 락인하고 사죄할것을 완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25년전 리정자동포의 투쟁모습을 소개하였던 일본《요미우리신붕》은 이번에 또 그의 투쟁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김영광소장은 감격하여 국제전화로 어머니를 고무해주며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하였다.

그때 리정자동포는 아들에게 이런 뜻깊은 이야기를 하였다.

《너도 다 아느냐. 우리는 숙어들지도, 굽어들지도 않는다. 공화국의 해외공민인데 무엇이 두렵고 주저된다더냐. 우리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본사기자 조광열

인상기

통일애국성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나의 고향은 함경북도 명천군 명천읍이다.

일찌기 7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나는 20대에 눈물속에 고향을 하직하고 이국땅으로 건너갔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근 20년동안 생활해온 나는 해외공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해놓은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제5차 범민족대회에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대표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참으로 이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방문기간 나는 조국인민들이 건설하여놓은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판문점에도 가보고 남조선당국자들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한 콩크리트장벽도 보았다.

이 과정에 나는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며 누가 전쟁과 대결, 영구분렬을 꾀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조국에서 사는 동포들은 더욱 그러하겠지만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절박감은 더욱 사무치게 안겨온다.

지금 온 겨레가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뜻깊은 래년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하자고 모든것을 다하고있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아직도 콩크리트장벽을 허물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



5천년 우리 나라 력사에 언제 민족을 콩크리트장벽으로 나라와 둘로 갈라놓은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이 분렬과 대결에서 권력유지와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만고역적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대범죄행위이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살해하기 위한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북남합의문건리행을 가로막고 우리 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 하고있다.

바로 이런 반민족, 반통일 행위로 하여 남녘겨레들은 제5차 범민족대회와 제4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최루탄이 작렬하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치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말로는 《대화》와 《통일》을 운운하고있지만 실지로는 민족영구분렬과 북과의 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에게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애국애족의 기치,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살아도 언제나 조국을 잊지 않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있다.

나는 언제나 조선민족의 근본을 잊지 않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김유섭

100년 묵은 산삼

남조선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김아무개 로인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그이께 100년 묵은 산삼을 삼가 올려줄것을 아들에게 부탁한 사실이 전해져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오래동안 산삼캐기를 해오면서 많은 산삼을 캤다는 이 로인은 얼마전에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난생처음 100년 묵은 산삼을 캤다.

김로인은 값을 후하게 치르겠으니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귀중히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다 거절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로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소식을 전하는 테레비죤을 보니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이 축가신것 같더라.

김정일장군님의 안녕은 우리 백의민족의 안녕이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우리 민족이 잘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100년 묵은 산삼을 장군님께 올렸으면 한다. 그러니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산삼을 꼭 이북에 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김로인은 정성들여 짠 향나무함에 바위이끼로 정히 싼 생신한 상태의 산삼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고향소식

령길에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자강도의 만포시에서 동남쪽으로 얼마동안 가느라면 건하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으로 가자면 상강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얼마전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 철려시에서 살고있는 허재근동포의 고향 건하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령을 넘게 되였다.

가을의 풍요한 경치에 가슴이 후련해서 령굽이를 돌아서던 우리는 길가에 솟은 참나무를 올려다보며 깔깔거리는 댓명의 처녀들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

《호호… 욕심쟁이, 그만큼 따먹었으면 냉큼 내려와.》

열여덟살쯤 되보이는 이쁘장하게 생긴 처녀들의 웃음대상은 참나무의 정수리에서 도토리를 까고있는 다람쥐였다.

꿈많고 웃음 많은게 처녀시절이라더니.

우리는 처녀들에게 건하리로 가자면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가고 물었다.

처녀들은 자기들과 함께 지름길을 타면 인츰 마을에 가닿을수 있다고 하였다.

처녀들과 함께 걸으며 건하리에 대한 표상을 가지려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자라는것을 밝히고 이것저것 물었다.

그중 키작은 처녀가 자기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해방전에 건하리를 건자리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땅이 건조하고 자갈이 많아 유래된 지명이라던가.

가물에 노랗게 타는 돌밭의 곡식을 보고 쏟아지는 눈물과 한숨을 거두지 못하던 건자리사람들, 더는 생활을 지탱해낼수 없어 압록강의 물결우에 눈물을 뿌리며 해외로 떠나간 사람들중에 허재근동포도 있었으리라.

처녀들이 저저마다 들려주는 과거사에 귀가 솔깃해진 우리는 상강령마루에 오른것도 몰랐다.

《건하마을이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처녀들이 환성을 올릴만큼 풍만하고 아름다운 산촌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살찐 소잔등같이 길게 누워간 골안을 따라 2층살림집이며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건물들이 숲속에 묻혀있는것이 한폭의 그림 같았다.

우리는 가을의 농촌전경을 놓치고싶지 않아 사진기를 꺼내여 마을전경에 초점을 맞추어갔다.

자기들의 고향이 소개된다고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쥐고 어쩔줄 몰라하는 처녀들에게 우리는 사진기로 마을을 보라고 했다.

한동안 구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처녀들이 물고기가 욱실거리는 양어장이 뒤산옆탁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것이 섭섭하다고 하였다.

땅이 건조하여 건자리라 하였다는 이고장에 양어장이라니 과연 흥미가 동했다.

처녀들의 말인즉 자기 아버지들이 청년기에 궐기해서 자갈밭을 파서 큰못 세개를 만들었다는것이다.

마을의 늙은이들은 공연한 헛수고를 한다고 혀를 끌끌 찼었다.

건자리땅에 하천이 생겨 물이 흘러들고 못에서 고기가 떼지어놀고 자갈밭이 논밭으로 변하였을 때 늙은이들은 자기들의 머리도 낡고 고장지명도 낡았다고 하면서 건하리로 이름을 고쳐불렀다.

과거에 흰쌀밥에 생선 한 토막을 제상에 놓는것을 평생 소원하던 이고장의 늙은이들이 논밭에서 누렇게 익은 벼를 걷어들이고 양어장에서 팔뚝같은 물고기를 잡아낼 때 너무도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고 한다.

우리는 애된 처녀들이 농장의 농사형편이며 살림살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있는것이 대견해서 그들의 내막을 캐물었다.

수집움을 머금던 순이라는 처녀가 나서며 이들은 다 여기가 고향인데 아버지, 어머니들의 대를 이어 고향땅을 꽃피울 결심을 품고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것이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통신교육체계에 망라된 처녀들은 마침 농업대학에서 등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밝은 희망과 갸륵한 마음을 가진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처녀들이다.

우리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고향땅을 가꾸어가는 처녀들에게 사진기의 샤타를 누르라고 하였다.

순이라는 처녀가 생긋이 웃으며 자기가 찍겠노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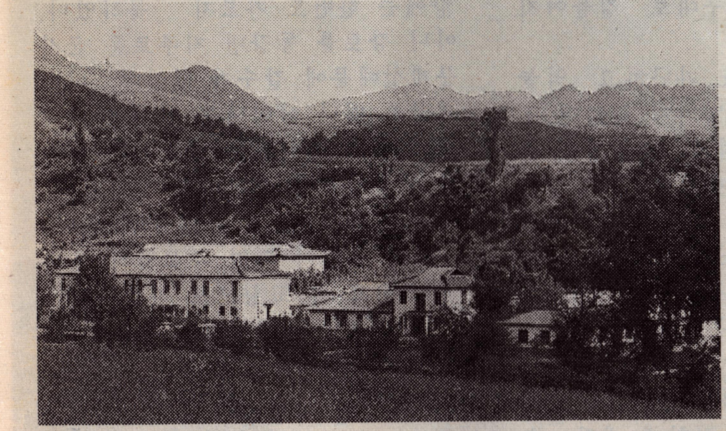
찰칵, 순간 순이는 콩당 뛰며 어쩌나, 사진을 찍을 때 눈을 깜박했다는것이였다.

와, 우리는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눈은 감았어도 사진은 찍히였으니 걱정을 놓으라고 하였다.

웃음이 날리는 령길이였다.

처녀들은 자기들이 들려준 모든것이 실물로 펼쳐질 마을로 우리를 안내하겠노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우리를 끌었다.

이국에 있는 허재근동포, 그네가 이고장 처녀들의 안내를 받으며 고향의 령길을 밟는다면 그 기쁨과 감회가 얼마나 클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가슴이 후더워옴을 느끼며 령길을 내리였다.



자강도 만포시 건하리

수기

조국에 올 때마다



나는 조국땅을 밟을 때마다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군한다.

오래동안 떨어져있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애의 심정이라 할가, 친정집에 첫나들이 온 딸의 마음이라 할가.

길가의 조약돌에도 정이 가고 새소리조차 반가운데 왜서인지 가슴속 깊은곳이 찌릿해오고 저도모르게 솟구치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것이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태를 묻은 땅에 대한 애수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 몇갑절 더 숭엄하고 강렬한 감정이 내 심장의 흉벽을 쾅쾅 두드려주고있는것이다.

나의 고향은 부산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조국에 고향을 둔 해외동포들이 즐겨 외우군하는 고향의 꿀같이 단 샘물맛이며 해종일 뛰놀던 버들방천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다.

내가 3살잡히던 해인 1943년에 어머니는 나와 두 오빠를 데리고 징용에 끌려간 아버지를 찾아 싸할린으로 갔다. 망국노의 운명은 나에게서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가질 기회조차도 빼앗아갔던것이다.

어머니는 우리 일가가 낯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게 된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조국이 없기때문이라고 말해주군하였다.

나보다 몇살씩 우인 오빠들은 청년기에 들어서자 조국에 나와 살겠다고 무진 애를 썼다. 둘째오빠는 1960년에 끝끝내 조국으로 나왔다.

이제는 조국으로 가고싶은 마음에 둘째오빠에 대한 그리움까지 합쳐졌다.

(우리는 이렇게 영영 조국과 떨어져 살아야만 한단말인가?!)

설사 어머니가 없이는 살수 있어도 조국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것은 우리 일가가 뼈저리게 체험한 생활의 법칙이였다.

나는 달밝은 밤이면 창공을 자유로이 헤가르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며 혼자서 울군하였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무 상심말아라. 우리 멀리에서나마 조국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살자꾸나.》

그러나 조국은 멀리에 있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있는 싸할린에도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이 생겨났던것이다. 조국은 불우한 운명을 지니고 해외각지로 흩어져간 사람들까지도 다 안아주는 한없이 넓고넓은 품이였다.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이 되던 날 나는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난것과 같은 환희를 느꼈으며 한생을 조국을 위해 살리라고 굳게 마음다졌었다.

1975년에 나는 그리도 애타게 바라던 조국방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그때에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내 가슴에 그대로 간직되여있다.

인민의 힘과 지혜로 일떠세운 무수한 창조물들, 거리와 마을들에 넘치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대로 길들여지고 가꿔진 산천…

지난날 지지리도 가난하고 억눌려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조선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기고 수많은 아들딸들을 산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 땅에 떠나보내야 했던 조선이 오늘은 이렇듯 위엄차고 부강한 모습으로 내앞에 우뚝 솟아있는것이였다.

(아, 예가 바로 내 조국이로구나!)

나는 행복하였다. 32년만에 찾아온 딸에게 조국은 고향에 대한 추억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귀중한것을 주었다. 그것은 조선민족된 긍지였고 위대한 조국을 가진 공민의 자부심이였다.

그때로부터 나는 자주 조국에 찾아온다.

그리고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슴가득 받아안군한다.

나는 이번에 조국에 와서 34년전에 조국에 나온 둘째오빠를 만났다. 그는 조국에서 김책공업대학(지금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과학부문에서 연구사(준박사)로 일하고있다. 이제는 환갑을 가까이 하고 귀여운 손자들의 재롱을 받는 할아버지가 되였지만 오빠는 여전히 정력에 넘쳐 연구사업에 전심하고있었다.

이역땅에서 조국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나는 오빠를 대하기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오빠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네가 해외에서도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잘 지켜가고있는것이 제일 기쁘다. 우리 어디서든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살자.》

오빠의 당부는 그대로 나의 결심이기도 하다.

나는 자나깨나 인생에 빛을 주고 마음의 기둥을 세워준 조국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뿐이다.

나는 여러차례 조국에 오지만 고향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아니 강토를 동강낸 저주로운 군사분계선때문에 갈수가 없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언젠가 나에게 외세에 매여있는 남조선은 우리가 깃들일곳이 못된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을 명심하고있다.

이제 통일이 되면 부모님의 유해를 모시고 꼭 고향으로 가겠다.

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

로련 싸할린주 유즈노싸할린스크시 리복님

청진화학섬유공장

북방의 도시 청진시에 자리잡고있는 청진화학섬유공장은 나라의 위력한 화학섬유생산기지의 하나이다.

이 공장에서는 목재로부터 얻은 팔프를 원료로 하여 질좋은 인견실과 스프를 생산하여 전국의 방직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에 보내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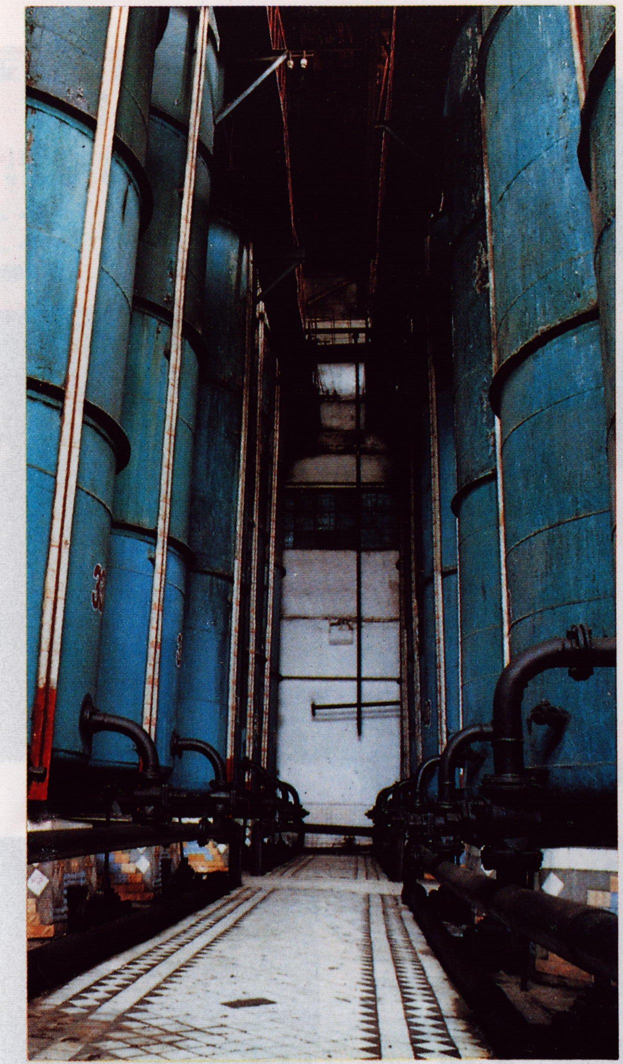
해방(1945. 8)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풍부한 림산자원을 략탈해갈 목적으로 세운 이 공장은 설비와 기술이 매우 락후하였으며 보잘것 없었다. 게다가 공장에는 초보적인 로동안전보호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유독성가스의 류출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생명을 잃었다. 하여 공장구내는 물론 주변에 한그루의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말그대로 죽음의 일터였다.

그나마도 조선전쟁(1950. 6~1953. 7)시기 흔적도 없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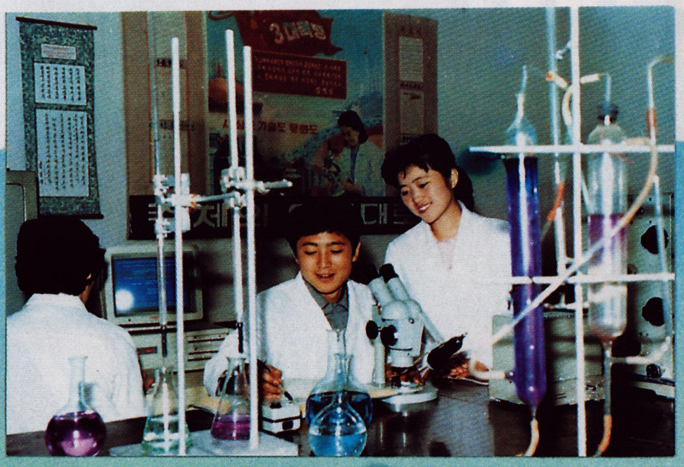
전후에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하여 이 공장을 복구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짧은 기간에 원상복구된 이 공장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대규모적으로 신설확장되여 원액직장으로부터 스프직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화된 설비와 기술로 장비되고 새로운 생산계통들이 보충완비되였다. 특히 공장을 건설하면서 제진장치들과 일체 로동보호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이 공장의 구내는 온갖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뭇새들이 우짖는 《공원속의 공장》으로 변모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휘률



탕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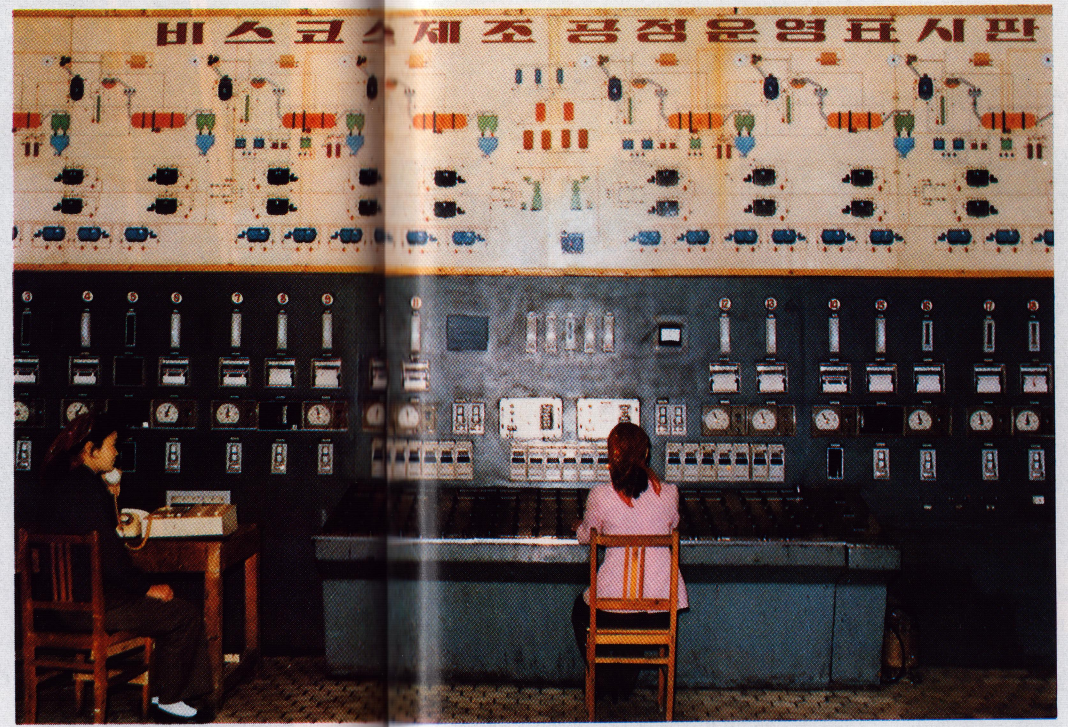
공업연구소에서의 분석작업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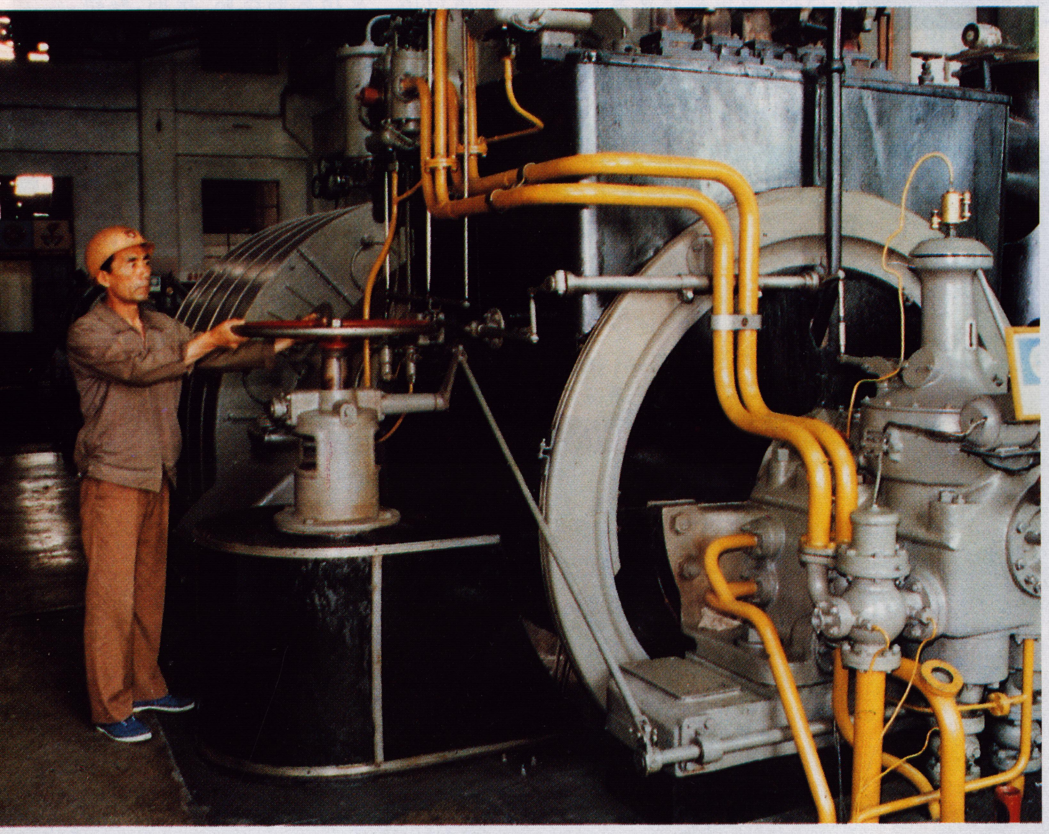
생산되는 실토리



종합조종실



생산자의 기쁨



발전직장의 일부



스프생산작업장

조선특산

해 삼



해삼은 유족목 해삼과에 속하는 극피동물의 일종이다.

생김새와 몸길이는 3년생에서 보통 20cm정도이다. 색갈과 크기는 사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보통 둥글통모양인데 등쪽으로 불룩하고 그우에 고깔모양의 도드리가 나있으며 배쪽은 평평하다. 앞두리에는 20개의 촉수가 있는데 이것은 감각과 먹이를 잡는 기능을 수행한다. 배쪽에는 운동하는 세줄의 자루발이 있다. 등은 풀색이거나 밤색이며 배는 붉은 밤색 또는 재색이다.

보통 물깊이가 10m～30m 되는 곳에 사는데 물결이 세지 않고 감탕－모래질이면서 조가비나 바다풀이 많은 음달진곳을 좋아한다.

우리 나라의 동서해안 얕은 바다에 널리 퍼져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삼자원을 보호할뿐아니라 널리 기르고있다. 주로 새끼해삼을 길러 바다에 놓아주거나 인공적으로 알을 받아 번식시키고있다.

해삼은 말그대로 《바다의 삼》이란 뜻으로 영양가가 높고 맛이 특이한 고급식료품으로 몸보신에도 널리 쓰인다.

해삼은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과 칼시움, 철 등 사람에게 필요한 광물질이 많다.

해삼으로 료리를 할 때에는 말리운것과 생것을 갈라서 손질한다. 마른 해삼은 물에 푹 불쿠어서 해감물을 다 뺀후 료리를 하며 생해삼으로 료리할 때에는 모래가 없도록 잘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낸다음 가공한다.

해삼으로는 생회, 랭채, 찜, 탕, 볶음, 구이, 전 등 여러가지 료리를 만들며 다른 료리의 맛을 돋구기 위하여 흔히 잡채에 넣는다.

민족음식

명태미나리강회

명태	…………………	100그람	사탕가루	……………	20그람
소금	…………………	2그람	실고추	……………	1그람
식초	…………………	20그람	맛내기	……………	0.5그람
간장	…………………	10그람	미나리	……………	70그람
깨	…………………	1그람	참기름	……………	3그람



①명태는 깨끗이 손질하여 살만 저미여 길이 4센치메터, 너비 2센치메터, 두께 1센치메터의 크기로 썬 다음 소금을 뿌려 꾸덕꾸덕하게 만든다.

②미나리는 잎을 떼고 줄거리만 골라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찌운다.

③명태살에 식초, 깨, 소금, 맛내기, 참기름, 사탕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30분간 재운다.

④실고추 2～3개와 명태살 1～2개정도를 함께 쥐고 미나리 줄거리로 돌돌 감는다.

이것을 접시에 보기 좋게 담고 초간장과 함께 낸다.

어머니의 기쁨

황해북도 사리원시 구천1동에서 살고있는 상유덕녀성은 세상에서 자기만큼 복을 받고사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과연 그가 받고 누리는 복이 어떤것인지 그의 생활의 몇대목을 더듬어보려고 한다.

피줄이 준 정

1992년 7월 어느날 상유덕은 평양고려호텔에서 우즈베끼쓰딴에서 온 맏아들 주영일과 30여년만에 상봉하게 되였다.

그림자처럼 어머니의 치마폭에 감겨들며 곰살궂게 굴던 살붙이가 우연한 기회에 이국에 갔다가 40대의 중년이 되여 나타나게 되니 아들과의 상봉을 앞둔 어머니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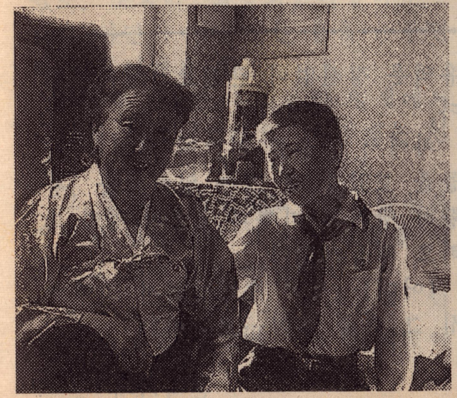
기나긴 세월의 공간속에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였는데 서로 알아볼수나 있겠는지.

정도 나누어야 두터워진다는데 끊어진 정이 맏이를 찬 사람으로 만들어놓았으면 가슴아픈 마음을 어떻게 참아낸단말인가.

피줄이란 이상한것이였다.

세월의 힘앞에는 모든것이 퇴색되고 망각된다고 하지만 피줄이 준 정은 어쩌지 못하였다.

먼 눈길에서도 자기의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숨결을 준 아들의 모습이 어제날 젖꼭지를 물고 빠끔히 올려다보던 사랑둥이의 그 눈길이며 그 입모습, 그 오뚝한 코마루가 너무도 방불하고 신통하게 안겨와 흐흑, 어머니는 뜨거운것을 쏟고야 말았다.



조국에 온 맏아들을 품에 안은 상유덕은 행복의 상상에 서있는듯 참으로 행복했었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속에 30여년만에 이루어진 모자간의 상봉과 함께 이국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나라의 룽성과 통일성업에 이바지하는 해외동포조직의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난 아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게 된 기쁨이 어리여있었다.

어리둥절

참 모를게 세상일이라고 한다.

하여 평범하게 흘러가는 생활속에서 눈물과 눈물이 뒤엉키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이 문뜩 생기는 때도 있는것이다.

1994년 4월 2일, 그날도 상유덕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들과 함께 여느날과 다름없이 텔레비죤을 보고있었다.

저녁 8시 보도시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2돐에 즈음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의 평양도착이 방영될 때 방안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저게 영일이가 아니냐?!》

《형님이예요! 형님!!》

방송원이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부위원장 주영일을 단장으로 하는 4.15경축 축하단이 평양에 도착하였음을 알렸다.

너무도 짧은 한 순간이였다.

상유덕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뇌리를 쳤던지 정색하며 둘째아들 영철에게 물었다.

《둘째야, 금방 방송원이 단장이 누구라고 하더냐?》

《예?!》

모두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상유덕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며 손자손녀에게 캐묻듯 물었다.

《이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혹시 잘못볼수도 있다만 그래 너희 큰아버지가 분명하더냐?》

《옳아요! 맞아요! 할머니를 꼭 닮았던데.》

《호호, 자식두.》 행복에 겨워 기쁨에 겨워 유덕은 손자손녀를 한품에 안았다.

너무도 기쁜 일을, 너무도 즐거운 일을 뜻밖에, 급작스레 당하고보면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눈, 귀도 의심하기 마련인가부다. 그래서 어리둥절해지는걸가.

꿈인가 생시인가

소박하고 무던한 녀인이 생의 미래를 그려본 꿈의 크기는 얼마였고 그가 환희에 차서 바라본 행복의 높이는 얼마였던가.

평범하고 수수한 보통 집에 이런 경사, 이런 희한한 일이 소식도 예고도 없이 찾아들수 있단말인가.

1994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의 축하방문을 받으시는 광경이 텔레비죤화면에 방영될 때 상유덕은 너무도 감격하여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 아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옆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면 깨지 말고 생시면 지지 말았으면.

상유덕의 젖은 입술사이로 줄곧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에!…세…상…에!… 이런 영광!… 이런 경사를 베풀어주시…다니!!》

10년은 젊어

1994년 4월 19일 상유덕은 맏아들 주영일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였다.

맏아들을 기다리는 그는 세상의 복은 다 자기가 안은듯 무한히 행복했었다.

하여 얼굴에서 떠날줄 모르는 웃

풍년광산

풍년광산은 우리 나라의 서북부 평안북도 삭주군 대대로동자구에 자리잡고있다.

이 광산에서는 린비료의 기본원료인 린회석을 캐내고있다.

이 광산을 풍년광산이라고 부르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1967년 8월 이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린회석이 없는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어느해 초여름 이고장을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탈밭에 자란 강냉이와 기장, 마늘이 다른 밭의것보다 류별나게 잘된것을 보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여기 땅속에는 틀림없이 린회석과 같은 비료성분이 묻혀있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탐사해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후 탐사일군들이 이 지대에 대한 지질탐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곳 땅속에 린회석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광산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광산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일군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름없던 무명의 산을 풍년산이라 불러주시고 광산을 풍년광산이라고 이름지어주시였다.

오늘 이 광산에서는 질좋은 린회석을 풍년산의 로천채굴장에서 캐내고있다.

이 린회석생산공정은 흐름식으로 되여있는데 대형파쇄기와 중쇄기에서 제 1차 2차 파쇄되여 마광기를 거쳐 부선기에 넘어가 선광된다.

광산이 개발된 초기에는 화물역까지의 정광수송을 대형화물차로 하였다.

현대적인 채굴,선광 설비들에 의해 린회석이 다량락광, 다량처리되면서 정광수송이 딸리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정광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삭도탑을 세우고 삭도줄을 늘이여 운반의 삭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자동차수송의 일면성이 극복되게 되였다.

광산에는 그 어떤 설비도 수리할수 있는 튼튼한 공무기지가 꾸려져있다.

여기에서는 굴착과 선광, 운반계통에서 제기되는 기계들의 수리정비와 광산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를 만들기도 한다.

이 광산에서 캐내는 린회석에는 자철광과 희유금속이 많이 포함되여있다.

특히 자철광의 함량은 대단히 높다.

광산은 선진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설비를 창안제작할수 있는 유능한 기술진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이들은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굴착과 선광, 운반에 이르는 설비계통의 기술갱신을 부단히 진행하여 광산의 종합적인 자동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최근 이곳 기술진은 자철광이나 희유금속들을 걷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나라에 큰 리익을 주고있다.

나라에서는 광산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광산에는 정양소가 있어 로동자들이 정기적으로 정양생활을 하고있다.

로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에서 광산봉사관리소가 한몫을 하고있다.

봉사관리소는 많은 부침땅을 가꾸어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사료로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고있다.

그리하여 이 광산에서는 자체의 후방기지에서 생산한 고기와 알,우유를 로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풍년광산은 우리 나라의 보배광산이다.

이 광산은 린비료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함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있다.

품위가 높고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풍년광산은 지금 큰 규모로 개건확장되고있다.

본사기자

음.

며칠사이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동네방네 들락날락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10년은 젊어졌다고, 아들을 잘 두었다고 부러워하였다.

그들의 칭찬이 크면 클수록 그의 마음을 잡고 놓치 않는 생각이 있었다.

좋은 재목감도 찾아 키우고 써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 아들을 찾아내여 키워주고 내세워주어 영일이가 빛이 나는게 아닌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이 크면 클수록 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신 아들을 기다리는 순간의 한초가 한시간으로 길어지고 한시간이 하루맞잡이로 길게 느껴져 상유덕은 속이 달았다.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렸을 때 유덕은 정신없이 큰길로 달려나갔다.

차에서 웃음을 지으며 내리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는 엎어질듯 황황히 달리며 기쁨과 눈물이 엉킨 소리로 떠듬거렸다.

《어디!…우리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잡아…보…자!》

본사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톤시 버다그거리 리영찬 앞

상봉의 날을 그리며

여보, 저는 지금도 헤여진후 43년만인 지난해 봄 당신이 보내준 첫 편지를 받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받고 기쁘면서도 야속하고 서운하여 울던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수 있겠나요.

그간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이해도 저물어가게 되니 당신이 못견디게 그리워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접 펜을 들었는가 봅니다. 정작 펜을 잡으니 할말은 많으나 무슨 말부터 먼저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군요.

지금 저의 눈앞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천리(당시 철산군 철산면 부영리)에 있는 당신에게 시집간후 함께 살던 부부생활이 어제런듯 떠오르는군요.

지붕우에 박꽃이 하얗게 핀 돌박산밑의 외딴집.

거기에서 가난한 시집 부엌살림을 도맡아안은 저의 맏며느리생활이 흘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친딸처럼 생각해주기에 저는 굶어도 행복했어요.

당신은 또 얼마나 저를 사랑해주었나요. 철산모나즈광산에서 고역을 치르고도 제가 때식을 설친 눈치라도 보이면 자기는 다른데서 먹고왔다고 하면서 죽그릇을 나에게 떠밀어주었지요. 저의 눈앞에 더욱 생생한것은 해방되던 날 문을 열고 들어서며 《여보, 이젠 우리 세상이 왔소. 조국이 해방되였단말이요.》라고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 때의 일이예요.

해방후 5년은 우리들의 일생에서 황금의 시절이였어요. 가정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차고넘쳤지요.

그 생활이 소중하였기에 당신은 전쟁이 일어나자 고마운 제도를 지키려고 전선으로 탄원했지요.

당신이 인민군대로 떠나던날 저는 리별주를 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아버지, 부모님들은 제가 돌보겠어요. 부디 잘 싸워 이기고 몸성히 돌아오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생리별의 비극을 겪게 되였습니다. 어떤 사연때문인지 당신은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저와의 약속도 어기구요.

당신과 함께 전선에 나갔던 림병섭, 박리갑은 전후에 제대되여와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청천강이남에서 우리는 적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영찬이가 쓰러지는것을 보았는데 정황이 긴박하여 우리는 시신도 찾지 못한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쩐지 당신이 잘못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후 소식도 없고 군사분계선이 생겨 조국이 둘로 갈라지니 차츰 생각을 고쳐먹게 되더군요.

주위사람들은 재혼하라고 권고했지만 저는 당신과의 첫 사랑의 인연을 버릴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 살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커가는데서 락을 찾자.) 이렇게 결심이 섭디다.

하지만 나혼자 저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는가 하는 걱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어요.

무료교육, 무상치료제가 실시된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아이들의 부모가 되여 우리 애들을 키워주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없다면서 다른 애들보다 더 각근히 보살펴주었습니다. 1978년 병으로 사망한 맏아들 명룡이, 압록강전기공장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는 정신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읍유치원 교양원으로 일하는 정희를 비롯한 6남매가 모두 나라의 이런 혜택을 받으며 공부하였어요.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는 모두가 조선로동당에도 들고요. 나라에서는 명룡이의 맏아들 철민이가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자 후방가족으로 대우해주었고 그가 제대된후에는 만풍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 제가 한 일이란 그저 애들을 낳은것뿐이지요.

당신은 공화국의 현실을 잘 모르기에 이것을 믿지 못할거예요.

지금 고향땅에 살고있는 당신의 자손들은 50여명이나 된답니다. 고향땅에 들어서는 날 그 증손자들이 당신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여보, 우리가 살던 옛집에는 둘째딸 정신이네가 살고있습니다. 지난 전쟁시기 많은 집들이 불타버렸지만 우리 집은 폭격에 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뜨락에 심었던 돌배나무와 사랑채는 없어졌지만 원채는 옛모습대로 보존되여있어요. 주위에 고등농업전문학교, 과수작업반과 수십동의 살림집들이 건설되여 옛모습은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였습니다.

좋은 제도에서 이 행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풀리지 않는군요. 그때마다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질러 생리별을 당하게 한 미제와 리승만괴뢰역도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군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당신의 편지를 받았으니 이게 꿈이 아니란말입니까?! 요즈음은 이상하게도 꿈에 당신의 모습이 자주 보여요. 이젠 77살의 로친네가 되였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30대의 청춘기로 되돌아간듯 합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도 철부지나 다름



로정녀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실태와 전망(2)

(1) 항 만

△ 라진항

라진항은 조선동해 북단의 함경북도 라진-선봉시의 창평동(북위 42° 13′ 4″, 동경 130° 17′ 3″)에 위치하고있다.

항은 라진만안에 위치하고있으며 해안쪽으로는 라진반도(안주리)로 둘러싸여있고 만입구는 대초도와 소초도로 막히여 북동 및 동 방향에서 밀려오는 먼바다의 큰 파도로부터 천연적으로 보호되여있다.

대초도밖에서 최고 파도높이는 6m이고 평균 파도높이는 2.1m이지만 대초도안의 항내에서의 파도높이는 령에 불과하다.

라진항에서 주풍은 북서풍과 남동풍인데 북서풍은 봄, 가을, 겨울에, 남동풍은 주로 여름에 분다.

라진항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조수간만의 차이는 20~30cm정도이다.

라진항은 3개의 돌출부두에 총길이 2,515m인 10개의 안벽과 640m의 호안으로 구성되여있다. 안벽은 철근콩크리트구조물로 되여있으며 1만톤급 배를 댈수 있다.

철도인입선의 총길이는 16km이며 그중 넓은 철길은 11.7km이다.

항의 3개 부두에는 단번에 7,000톤급 배 4척, 1만톤급 배 9척을 댈수 있으며 년간 화물통과능력은 300만톤이다.

현재 항에서 취급하는 주요 화물은 석탄을 비롯한 산적화물, 지대화물, 파철, 원목, 잡화, 강재, 기계설비 등이다.

항의 총부지면적은 38만m^2이고 보관면적은 20만 3,000m^2이며 그중 창고면적은 2만 6,000m^2, 야적장면적은 17만 7,000m^2이다.

항에는 항만기중기를 비롯한 하역설비와 운반설비가 갖추어져있다.

라진항의 봉사시설로서는 2만톤급 수리도크와 2만톤급이상의 배도 건조 및 수리할수 있는 조선소가 있으며 해난구조대와 선원구락부가 있다.

앞으로 라진항을 통한 중계화물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조건에 맞게 항의 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것을 예견하고있다.

1단계(1993~1995년)에서는 라진항의 현존부두에 전문화된 상하선설비와 보관시설들을 개건 신설하고 1,000m의 새로운 부두와 3만 2,300m^2의 창고를 건설하여 화물통과능력을 1,000만톤이상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1단계 건설계획에 따라 최근에 라진항 1호부두에 현대적인 비료중계장이 새로 건설되여 완공되였다. 2만 5,000여m^2의 부지면적에 일떠선 이 비료중계장은 길이가 300m나 되는데 내부에는 비료부림장, 벨트콘베아수송선, 비료창고들이 특색있게 건설되였으며 비료 상하선과 운반, 보관 등 공정들이 기계화, 자동화되여있다.

2단계(1996~2000년)에서는 통과화물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큰 짐배들도 취급할수 있도록 새로운 부두를 더 건설하고 설비와 시설들을 보충하여 년 2,000만톤의 화물을 더 취급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2만톤부터 20만톤까지의 배들을 댈수 있게 약 3,500m의 안벽공사, 50만m^2의 창고건설(보세창고 포함)등을 예견한다.

2단계기간에 항에는 현대적인 집함부두와 려객부두가 건설될것이며 20만톤급 초대형선박을 취급할수 있는 석탄전용출하부두와 전용량곡출하부두가 꾸려질것이다.

3단계(2001~2010년)에서는 전망적으로 중계화물량이 증대(5,000만톤이상)되는데 따라 년 4,000만톤 통과능력의 부두를 새로 건설하려고 한다.

새로 예견하는 부두는 2만~20만톤급 배 36척을 동시에 댈수 있게 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청진항

청진항은 조선동해 북쪽의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하고있으며 동항과 서항으로 나누어져있다.

항들은 인공방파제로 보호되고있으며 항안에서 년평균 파도높이는 0.4m이다.

바람은 봄, 가을, 겨울에는 주로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주로 북동풍이 불며 년평균 바람속도는 2.8m/초이다.

항은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조수간만의 차이는 20~30cm이다.

청진항은 총길이 2,138m로서 동항에 3개 부두, 서항에 4개 부두 모두 7개의 부두로 구성되여있다. 안벽은 콩크리트구조물로 되여있고 5천~1만톤짜리 배를 댈수 있다.

청진항의 철도와 도로는 북부지구 류환선을 통하여 중국, 로씨야와 련결되여있다.

철도인입선의 총길이는 21.6km이다.

청진항의 년간화물통과능력은 동항 87만톤, 서항 713만톤, 총 800만톤이다.

현재 항에서 취급하는 주요화물은 잡화, 량곡, 강재, 자철광, 광석 등이다.

항의 부지면적은 동항 19만 2,500m^2, 서항 82만 1,2 50m^2, 총 101만 3,750m^2이다.

항의 짐보관면적은 총 12만 6,000m^2이며 그중 창고면적은 2만 7,000m^2, 야적장면적은 9만 9,000m^2이다.

청진항을 통한 중계화물수송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항의 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총적인 지대개발단계별로 볼때에는 1단계와 3단계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1단계(1993~1995년)에서는 서항의 3호부두와 4호부두를 련결하는 480m의 안벽을 새로 건설하여 년 100만톤능력의 집함전문부두를 형성하며 현존부두들의 설비와 시설을 개건하여 동항과 서항에서 1,000만톤의 화물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480m의 안벽공사, 약 30만m^3의 준첩, 6만m^2의 야적장포장공사, 1,000m의 철길공사 등을 예견하고있다.

3단계(2001~2010년)에서는 청진항에서 동항에 약 1,600m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고 설비와 시설들을 꾸리여 년 1,000만톤의 통과능력을 새로 더 조성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약 1,600m의 부두와 1,200m의 방파제건설, 50만m^2의 야적장포장, 40만m^3의 준첩공사 등을 예견하고있다.

△ 선봉항

선봉항은 조선동해 북단의 라진-선봉시 라진구역의 관곡동에 위치하고있다.

라진항으로부터 해상거리로 약 24마일 떨어진곳에 있다.

항의 총부지면적은 20만m^2이며 기름을 전문 취급하는 원유입하부두와 원유제품출하부두로 되여있다.

원유입하부두는 3,236m의 해저관을 늘이고 한점계류부표를 설치하여 25만톤급짜리 유조선을 대고 원유가공공장까지 원유를 압송할수 있게 건설되여있다.

통과능력은 년간 200~300만톤이다.

원유제품출하부두는 455m의 안벽에 5천톤급 유조선 2척을 동시에 대고 가공된 기름을 공장에서 유조선까지 관을 통하여 직접 압송할수 있게 건설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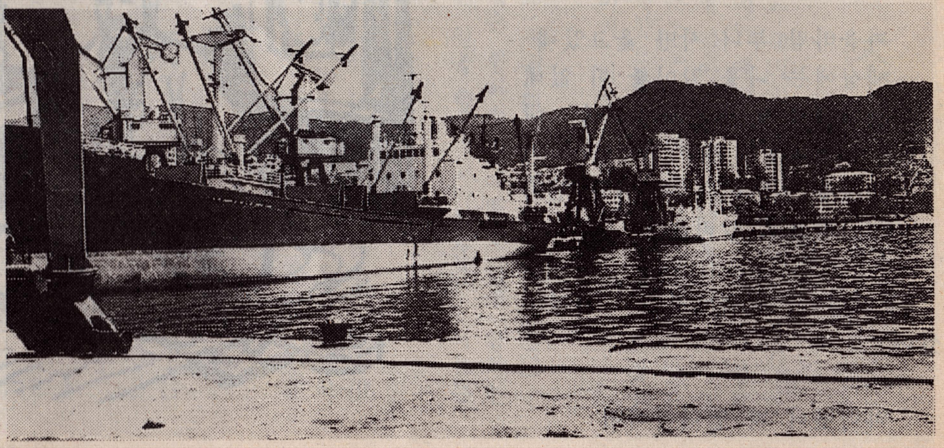
이밖에 안벽길이 100m의 봉사부두가 있어 봉사선들을 댈수 있게 되여있다.

현재 입하부두의 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해 해저관을 한줄 더 늘이는 공사와 1만톤급배 2척을 동시에 댈수 있는 출하부두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이 공사가 완공되면 년간 1,000만톤의 원유를 처리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전망적으로 라진항에서 7,000만톤~1억톤, 청진항에서 2,000만톤, 선봉항에서 1,000만톤 모두 1억톤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조성하게 된다.

본사기자 권 오 식

청진동항



없습니다. 정희는 고향방문 오는아버지에게 대접하겠다며 조개, 전어를 비롯한 조선서해의 특산물을 보관하고있어요.

아버지의 식성을 묻는 자식들에게 저는 《고향을 그리는 사람이 농토산물맛을 잊었겠느냐.》하고 말해주군합니다.

고향에 있는 저희들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망명객의 설음을 안고사는 당신이야 오죽하겠나요. 당신은 편지에서 오래동안 재혼하지 않고 전재고아들을 키우며 고향돌아갈 날을 기다리였다고 하셨지요.

망향의 한이 풀릴 날은 꼭 올거예요.

여보, 고국에서는 얼마전에 우리 인민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급병으로 애석하게 서거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릴 결정적순간에 어버이를 잃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여 7천만 겨레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당신의 심정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리별의 설음 안고사는 저의 마음은 더더욱 절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기더군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그이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앞당겨질것입니다.

그날은 눈앞에 밝아오고있습니다.

저는 당신도 통일성업에 더욱 힘있게 동참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그길이 우리들의 뜻깊은 상봉을 앞당기는것으로 될거예요.

상봉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 서로 건강을 돌보며 더 힘껏 일합시다.

다시한번 건강을 부탁하면서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4년 11월 30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천리 3반
로 정 녀 올림

이름있는 학자 최치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천도교의 창시자이며 1세교조인 수운 최제우를 소개하시면서 그의 먼 조상은 9세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 고운 최치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고운 최치원은 신라의 국운이 기울어져가던 857년(제46대 문선왕 19년) 경주 사량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2살에 당나라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 당시 신라사람들은 당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적경향이 매우 농후하였고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여야 큰 벼슬을 하는것으로 여기였다.

류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만약 10년이 되여도 급제 못하면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공부에 힘쓰라.》

그는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하여 18살에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20살때부터는 지방과 중앙관청에서 벼슬을 지냈다.

그는 이 시기에 벌써 문학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최치원은 당나라 내정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그 나라에서 높은 벼슬, 대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치였지만 자나깨나 조국에 대하여 잊지 않았다.

그는 《비오는 가을밤에》라는 시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가을바람 부니 시만 읊고있네
세상에는 나를 알아줄 이 없네
창밖에서 밤비는 부슬부슬 내리네
등잔불 껌벅이고 내 마음 만리밖으로 달리네

《봄바람》이란 시에서는 이렇게 썼다.

바다건너 저 먼나라에서
네 아마 갓 불어온게로구나
새벽부터 웅얼대고 앉아
생각은 다잡지 못하노라
딱하여라 이따금 서재로 들어
부산히 장막을 설레이는건
꽃철이 곧 다가온다고
저 멀리 고국소식 전하렴인듯…

당나라에 체류한지 16년만인 28살때에 그는 그처럼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것을 결심하였다.

귀국후 최치원은 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 등 벼슬을 지냈고 벼슬등급이 이찬에 이르렀다.

이 시기 봉건통치자들의 왕위쟁탈전은 극도에 달하여 국력은 쇠약해지고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만 갔다. 특히 889년(진성녀왕 3년) 봉건국가관리들의 조세강탈사건은 농민들의 폭동을 산생시켰다.

최치원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형세를 바로잡기 위해 진성녀왕에게 시무책 10개조항을 올리였으나 간신들의 모해를 받아 지방군수로 밀려나게 되였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가야산에 들어갔다.

이것은 그의 계급적제한성에서 나온 소극성이기는 하나 부패한 신라 왕정에 대한 항거였다.

그는 가야산 해인사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시작품을 썼다.

최치원은 이름난 문학가의 한사람이였다.

그의 문학적재능은 당나라에 있을 때부터 널리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 급제할 때에 벌써 한상자의 시를 썼으며 20살때까지는 135수로 된 시집 3권을 내놓았다. 《비오는 가을밤에》, 《산양에서 고향친구를 만났다가 헤여지면서》, 《강남녀》 등은 이 시기 그의 대표작들이다.

그는 그후에도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오늘 알려져있는것은 《계원필경》 20권과 문집 30권인데 그중에서 오늘까지 전해오는것은 《계원필경》의 일부와 리조시대 서거정이 편찬한 100여편의 글과 《태평통재》에 실린 《쌍녀분》 뿐이다.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에서 600여점의 문화재를 강탈하여 자기 고향에 가져갔는데 그중에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시부도 들어있다.

《계원필경》은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랜 문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는 옛문집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고려 왕건이 국정을 바로잡아나가자 그에게 《신라는 벌써 누르러가는 가을 나무잎과 같은데 고려는 청청한 소나무와 같다》고 썼으며 후백제의 견훤에 대해서는 그를 짐승에 대비하면서 그에 대한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고 격분에 차서 질책하였다.

그는 시 《소박한 생각》에서 통치자들의 간악성과 허위성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썼다.

여우가 재주넘어 미인이 되고
삵은 변하여 선비가 된다네
그 누가 알랴 짐승의 무리들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것을

최치원은 봉건통치배들의 추악성을 폭로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정신세계와 고통스러운 생활처지를 동정하여 노래하였다.

부유한 집 처녀들은 교만하여
바느질하는것을 부끄러워하고
분바르고 거문고만 타는데
그 곡조 고상치 못하고 음탕하다

청춘이 천년갈듯 여기며
이웃집 가난한 처녀들이
온종일 비단짜는것을 비웃어 말하기를
《너희들 아무리 비단을 짜도
그것 한오리 입어 못보리라》하네

그는 시 《촉구화》(접시꽃)에서 이렇게 썼다.

쓸쓸하고 거친 밭머리에
활짝 핀 촉구화!
봄비에 향기 그윽하고
보리바람에 그림자 하늘거리되
누구하나 들떠보는 사람없이
나비벌만 분주히 와 건드리니
이들 천한 땅에 태여나
버림받은 신세를 한없이 원망하네

작가는 이 시들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부유한 집 처녀들의 생활을 폭로하고 천한 시골처녀의 아름다운 자색과 마음씨를 찬양하였으며 신분제도의 차이때문에 뛰여난 재능을 펴볼수 없는 인민들의 처지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다.

최치원은 그외에도 우리 나라 고대인민들의 춤과 노래, 연극, 풍속을 반영한 작품인 《향악잡영》과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노래한 자연산수화시들, 조국의 력사를 소개한 회고시 그리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랑만적사랑감정을 표현한 글 등 우수한 작품들을 남겼다.

최치원에 대하여 고려의 학자 리인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최치원은 원래 구름과 같은 수염에 빰은 옥과 같이 희였고 그의 머리우에는 항상 흰구름이 깃든듯하였다. 그의 초상은 그가 기거하던 서재에 걸려서 지금도 남아있다.》

중국시인은 그를 이렇게 찬양하였다.

열두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그 문장이 중국천지를 진동시켰네
십팔살에 과거시험장에 들어가
한살로 장원급제를 쏘아 맞혔네

고운은 《헌시계》란 자기의 글에 《학파인즉 고래가 비단물결을 뿜는듯하고 문장기세인즉 날카로운 검이 은하수를 의지하고 서있는것 같다》고 하였다.

중국의 력사책인 《신당서》 예문지는 최치원저작 《계원필경》과 《사륙집》을 그의 경력과 함께 높이 평가하였다.

귀족출신인 최치원이 일련의 진보적인 작품들을 쓸수 있었던것은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와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을 직접 체험한데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에는 봉건유교도덕규범을 내세우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문란해진것은 사람들의 정신도덕적인 《수양》을 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는 등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속담

△제발이 효자보다 낫다 — 제가 움직여 제발로 가는것이 효자의 부축을 받아 가는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고 제힘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개미 천마리면 망돌을 굴린다 — 작은 힘이라도 여럿을 한데 합치면 큰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 —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결하면 어떤 무서운 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음을 이르는 말.

△돌뚫는 화살은 없어도 돌파는 락수는 있다 — 세게 내쏘는 화살은 돌을 뚫지 못하지만 여러해를 두고 쉬임없이 떨어지는 물은 마침내 돌을 파서 움푹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인내성있게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할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 사람은 아량있고 품성이 좋아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어야 자기에게도 그만한 정이 돌아온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도시소개

안주시(1)

안주시는 평안남도 서북부에 있는 공업도시이다.

안주는 고구려시기부터 지방행정과 수공업, 상업의 중심지의 하나로 되여있던 오랜 도시이며 해방후 급속히 발전하여온 지방도시의 하나이다. 특히 전후에 청천강반에 커다란 화학공업기지와 건재기지, 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섬으로써 안주시는 서해지구에서 손꼽히는 공업도시로 전변되였다.

이 도시의 공업은 화학, 전력, 건재, 기계, 방직, 채굴 등 중앙공업과 가구, 식료, 일용, 제지, 도자기 등 지방공업으로 이루어져있다. 압도적부문을 차지하고있는것은 중앙공업이다. 특히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시내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대화학공업기지이다.

둘레만 해도 수십리가 되는 이 기업소는 대형 탕크들과 탑, 관으로 숲을 이루고있는데 여기에는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계통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섬유로는 아닐론실을 생산하고있으며 수지를 가지고는 여러가지 수지 제품과 박막 등을 생산하고있다.

안주시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안주씨리카트벽돌공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년산 5억매에 이르고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씨리카트벽돌은 도내는 물론 평양시와 개성시를 비롯하여 각지에 보내주고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는 우리 나라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 이 발전소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안주씨리카트벽돌공장을 비롯하여 이 지구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고있다.

이곳 공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부문의 하나는 기계공업이다. 안주시에는 뜨락또르부속품공장, 통신기계공장 등 여러개의 기계공장들이 있다.

안주시에 있는 룡원광산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원료를 대주고있는 광산이다.

방직공업도 안주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공업부문이다.

그중에서 안주견직공장은 비단생산으로 력사가 오랜 공장이다. 이 공장은 년산 300만메터의 생산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생산하는 천의 종수는 200여종에 달하고있다. 다색단, 문항라, 문갑사, 생노방, 갑사, 은초사, 명주, 문장직, 공단, 릉직, 넥타이천, 목도리 등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천들은 그 질이 높아 외국에 많이 수출되고있다.

안주수출피복공장에서는 주로 솜옷과 잠바를 생산하고있다. 년 1만 3천벌의 생산능력을 가지고있는 이 공장은 주로 수출품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안주시에는 또한 식료공장과 장공장, 가구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한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다.

안주식료공장에서는 맥주와 술, 당과류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는데 맥주생산능력은 년 2,000키로리터로서 생산된 맥주를 다른 군에까지 보내주고있다.

안주가구생산협동조합에서는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양복장과 이불장만도 년 각각 1,000개씩 생산하고있다.

이밖에 다른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여러가지 식료품과 직물, 일용품, 도자기, 늪제품, 옷 등을 생산하고있다.

안주시는 또한 농업이 특별히 발전된 고장이다.

안주시에는 열두삼천리벌에 물을 대주는 평남관개의 기본수원을 이루는 연풍호가 있어 일찌기 평남관개의 혜택으로 수리화가 완성되여 안전한 농업지대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평남관개의 기본간선들과 수많은 지선들에 50여개의 양수장이 있어 어떤 이상기후에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였으며 청천강과 새내강, 신원천, 금계천을 비롯한 모든 강하천에 제방을 쌓아 큰물피해를 막을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였다.

안주시 농업에서 주요 알곡작물은 벼, 강냉이이며 콩과 수수, 보리, 감자도 적지않게 심고있다. 배, 추리, 복숭아, 사과 등 과일도 많이 재배하고있다.

안주시는 축산업도 발전하였다. 시에 있는 돼지공장과 닭공장, 오리공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고있다.

안주시는 옛날부터 누에고치생산이 유명하던 고장이다. 누에고치는 지금도 이 지방특산으로서 여전히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안주시는 철도와 자동차, 강하천운수가 발전하였다.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 철도운수이다. 이곳에는 평의선, 개천선이 놓여있으며 신안주는 이 철길들의 사귐점에 위치하고있어 철도운수에서 중심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주시에 여러차례 오시여 평남관개공사의 전과정을 지도하시였으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 발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또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이미 1950년에 이곳에 뜨락또르임경소를 설치하시여 농촌기계화의 전망을 열어주시였으며 지방공업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안주시의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안주시는 발전된 공업과 농업, 지방공업을 가진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되였다.



생산계획을 완수한 기쁨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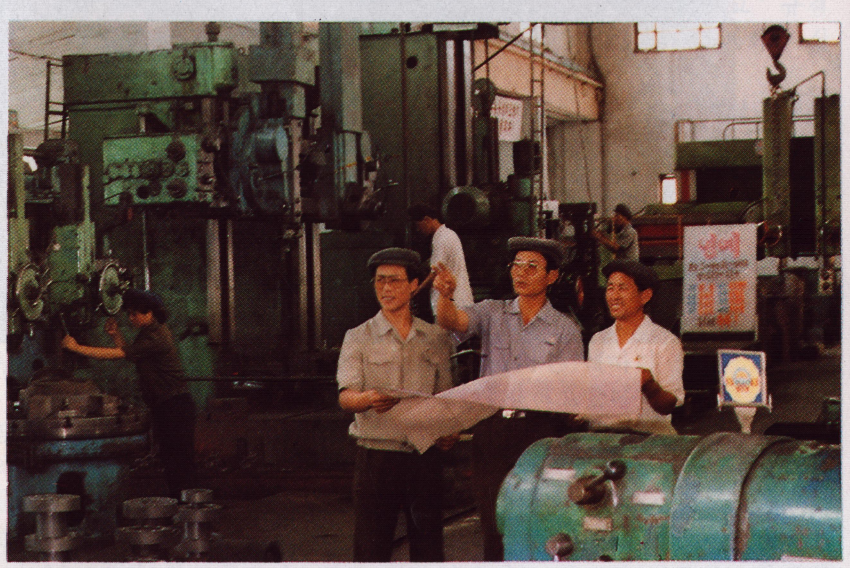




청천강화력발전소 발전기조작실



안주수출피복공장



9월28일공장 가공직장

본사기자 리히철

안주씨리카트벽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건설장으로 나간다.



제4차 평양영화축전

—제4차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중에서—



평양영화축전기발



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





인도예술영화《다시 돌아가다》


애급기록영화《허수아비》의 한 장면


웰남예술영화《갈밭》의 한 장면


시상식

본사기자 김휘률


말레이시아기록영화《우아한 생활》


중국예술영화《산골마을 교원들》

자주와 평화, 진보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4차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미주, 구라파, 대양주의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 옵써버, 국제기구대표들, 명예손님들이 참가하였다.

9월 26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는 개막식이 있었다.

이번 영화축전은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의지를 반영한 영화들이 많이 출품되여 축전참가자들과 우리 인민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에티오피아기록영화《물문제해결을 위하여》, 팔레스티나기록영화《봉기》, 유엔기구들에서 보내온 기록영화들은 자주적인 새 생활을 건설해나가는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나라 예술영화들은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고있는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념원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파키스탄예술영화《거울》, 방글라데슈예술영화《푸르스름한 감옥》등 많은 영화들에서는 인간의 기구한 운명을 빚어놓고있는 사회적불평등에 대하여 폭로하고있다. 또한 영화들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후대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중국예술영화《산골마을 교원들》)

축전에서 상영된 영화들가운데서 특히 자본주의나라의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형상하고있는 영화들이 관중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애급예술영화《아메리카에 대한 환상》에서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치욕적인 생활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인 본질과 부패상을 까밝히고있다.

꾸바예술영화《두 인생의 길》도 자본주의나라 생활보다도 자기 조국의 생활이 귀중함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이번 축전에서 상영된 조선예술영화《고마운 처녀》와 조선기록영화《평양의 사계절》은 온 나라가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사는 우리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발전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총련기록영화《총련이 걸어온 영광의 길》의 속편도 재일동포들이 지니고있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한없는 긍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 축전에서 상영된 영화들은 창작수법에서도 개성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였다. 영화주제가 뚜렷하고 형상수법이 다양한것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영화발전전모를 실증하고있다.

이번 영화축전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영화들과 창작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기록영화

《홰불》금상
애급기록영화《허수아비》

《홰불》은상
총련기록영화《총련이 걸어온 영광의 길》

《홰불》동상
에티오피아기록영화《물문제 해결을 위하여》

촬영상
조선기록영화《평양의 사계절》

연출상
말레이시아기록영화《우아한 생활》

구성상
탄자니아기록영화《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예술영화

《홰불》금상
웰남예술영화《갈밭》

《홰불》은상
인도예술영화《다시 돌아가다》

《홰불》동상
중국예술영화《산골마을 교원들》

△연기상

남자
이란예술영화《신부》의 주인공역 아블파를 푸르 아라브

녀자
조선예술영화《고마운 처녀》의 주인공역 김경애

촬영상
꾸바예술영화《달콤한 거짓말》

연출상
인도네시아예술영화《천사에게 보내는 편지》

영화문학상
우즈베끼스딴예술영화《로보트녀인》

평양영화축전 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
애급예술영화《아메리카에 대한 환상》

평양영화축전 조직위원회 특별상
타이예술영화《남푸에 대한 이야기》
캄보쟈예술영화《오누이농민의 기구한 운명》

조선문학예술총동맹상
몽골예술영화《사나이》
오스트랄리아예술영화《아야》

조선연극인동맹상
수리아예술영화《탐욕》

조선무용가동맹상
파키스탄예술영화《거울》

조선미술가동맹상
또고예술영화《아지아바》

조선음악가동맹상
방글라데슈예술영화《푸르스름한 감옥》

조선작가동맹상
독일예술영화《왈리의 마지막순회》

조선영화인동맹상
나이제리아예술영화《누구의 탓인가》
꼴롬비아예술영화《로라에게 한 고백》

조선기자동맹상
뽈스까예술영화《놀음의 종말》

조선자연보호련맹상
유엔개발계획 기록영화《네팔-서우의 증식을 위하여》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상
네팔예술영화《무크트 쌍하르샤》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들

남조선에는 애국에 뜻을 두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며 그들을 하루빨리 석방시키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다.

비전향장기수들은 통일조국을 위한 애국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우고있는 애국자들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죄 아닌《죄》로 30~40년씩 독감방에 갇혀 소름끼치는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이러한 비전향장기수들을 귀중히 여기며 성심성의로 돌봐주는것은 애국심에 바탕을 둔 의로운 행동이다.

알려진것처럼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리인모동지가 34년만에 출옥한후 여러해동안 뇌출혈과 폐염에 합병증인 농흉까지 겹쳐 병마에 신음하면서도 생존할수 있은것은 그자신이 소유한 불굴의 의지와 함께 남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있었기때문이다.

혈육 한점 없는 남녘땅에서 불구의 몸으로 고통받는 리인모동지를 자기 집에 데려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되여 오랜 기간 친혈육처럼 따뜻이 보살펴준 김상원가족, 《안기부》의 감시가 항시적으로 뒤따르는속에서도 병상에 있는 리인모로인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며 아낌없는 지성을 바친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재야운동단체 인사들,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자진하여 리인모동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가 북으로 송환될 때에는 진심으로 축복하며 지성어린 기념품들을 안겨준 고마운 사람들.

리인모동지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뜨겁고 눈물겨웠다.

리인모동지의 송환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사업이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 조직화되면서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다.

《김인서, 함세환 로인송환추진본부》, 《김영태로인송환추진위원회》, 《출소장기수후원모임》, 《민가협량심수후원위원회》, 《안학섭석방추진위원회》…

이 단체들의 이름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석방시키고 출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을 돌봐줄 목표를 내세운 여러 모임과 단체들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지난해 8월 《민가협》성원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의 단식통성투쟁에 합세하여 《대전교도소》앞에서 치렬한 싸움을 벌림으로써 안학섭장기수와의 41년만의 면회를 성사시키고 장기수들을 고무해준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벌리는 비전향장기수석방투쟁의 한 실례이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북에 혈육이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시키기 위한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최근 《김인서, 함세환 로인송환추진본부》는 《통일원장관》에게 《두 로인의 조건없는 송환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전민족에게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겨준다》고 하며 이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단체는 수시로 비전향장기수들과의 기자회견을 조직하는가 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온 편지 등을 잡지와 신문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인권기구들에 그들의 송환을 지원해줄것을 호소하는 편지들도 보내고있다.

이 단체의 투쟁에 다른 대중운동단체들이 적극 합세하고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련합》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련합》 등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김인서, 함세환 로인송환실현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문을 작성하여 들이대는 등 다양한 형식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김영태로인송환추진위원회》는 당국자들에게 그의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서, 진정서, 항의엽서 등을 보내는 운동을 진행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활동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출소장기수후원모임》은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들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양로원과 《보호소》들을 찾아가 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생활을 보살펴주고있다. 이 단체들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후원활동을 토론한 다음 편지를 보내여 그들의 투쟁을 고무해주거나 모금활동을 벌려 생활필수품을 보내주는 후원사업을 하고있다.

혈육 한점 없는 남조선땅에서 오늘까지 장가도 못가고 늙어가고있는 비전향장기수 함세환이 60돐 생일상을 받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비전향장기수 고 김병주의 딸 김지현이 입원치료를 받을수 있은것도 바로 이런 단체들의 지지성원이 있었기때문이다.

비전향장기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후원사업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고있다.

얼마전 《민가협량심수후원위원회》성원인 한 의사는 자진하여 출소장기수 39명에 대한 종합검진을 진행하고 한사람이 보통 두세가지 악성질병으로 고통당하고있는데 대하여 공개하면서 사회계에 이들에 대한 열렬한 후원을 호소하였다.

또한 한 작가는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감옥살이를 한 체험에 기초하여 그들의 불굴의 옥중생활을 반영한 소설 《살아있는 무렵》, 《뿌리내리기》, 《첫눈 내리는 날》 등을 련이어 창작발표하였다.

애국은 민족이 알고 력사가 안다. 애국에 뜻을 두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하여 온갖 성심성의를 다 바쳐가고있는 남녘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다.

호수를 논으로 팔다

봉이 김선달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마다 보고 듣는데서 가장 밉살스럽게 여겨진것은 돈에 미쳐 돌아치는 량반귀족놈들이였다.

신분과 권세로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오던 량반귀족들이 돈맛을 알게 되자 돈을 거머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억압만 아니라 롱간질을 하며 자기 재산을 불쿠어나갔다.

그러니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량반부자놈들의 권세와 돈세에 눌리여 날에 날마다 곤궁한 생활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백성들과 함께 이런 부자놈들을 가증스럽게 여겨오던 김선달은 어떻게 하면 그런 놈들을 속시원하게 골탕먹일것인가를 늘 생각하여왔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김선달은 좋은 계책을 안고 한때 자기가 살았던 함경도 광포호수가마을로 찾아갔다.

그는 자기를 반가이 맞는 마을의 농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량반부자놈들이 권세와 돈세를 휘두르며 피땀흘려 거둔 우리 농부들의 곡식과 재물을 눈 한번 깜박하지도 않고 공것으로 삼키고 있는데 우리도 눈 한번 껌벅하지 않고 그놈들이 모아놓은 돈을 공것으로 삼켜보는것이 어떠하겠소?》

그러자 농부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권세도 돈세도 부릴수 없는 가난한 우리 백성들이야 무슨 수로 그놈들의 돈과 재산을 공것으로 빼앗아 나누어 가진단말이요.》

《허허, 어찌 권세는 권세로 누르고 돈세는 돈세로만 누를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우. 세상엔 불은 물로 끄고 물은 불로 말리우는 법도 있지 않소이까. 권세와 돈세가 없으면 지략이나 궁냥으로 해볼수 있지요.》

《그럼 그대에게 무슨 지략이나 궁냥이 있소?》

농부들은 다소 호기심을 품고 물었다.

이때 김선달은 자기가 안고온 계책을 이야기하며 도와줄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김선달의 신통한 계책을 들은 농부들은 무릎을 치며 한번 해볼만한 흥미있는 일이라면서 도와주겠다고 호응해나섰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농부들과 함께 자기 계책을 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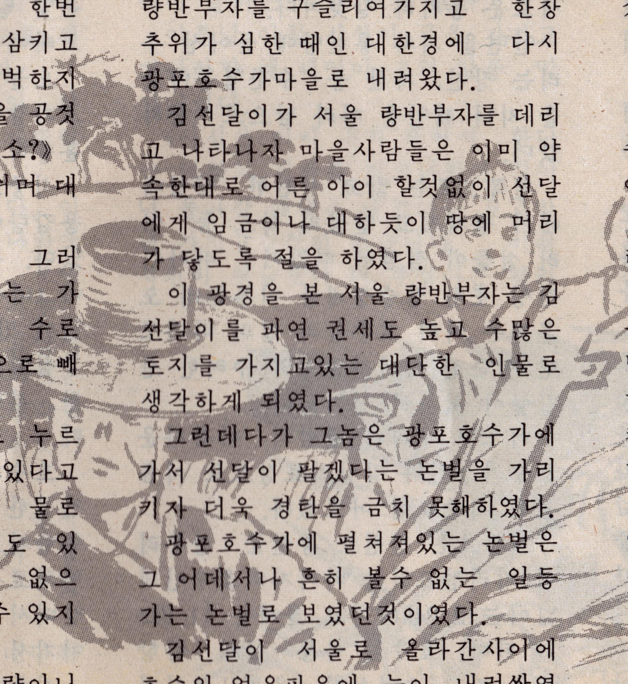
김선달은 우선 마을농부들에게 벼짚을 솔잎만한 길이로 잘게 썰어서 벼뿌리만하게 묶어 가져오게 하였다.

며칠사이에 산더미같이 쌓인 그것을 농부들과 함께 얼어붙은 광포호수에 내다 뿌려놓았다.

그 다음엔 북데기와 풀단을 가져다가 그우에 바둑판같은 논두렁모양으로 쌓아놓게 하였다.

이렇게 광포호수의 얼음판우를 논벌처럼 만들어놓은뒤 김선달은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돈을 긁어모아놓고 땅뙈기를 사지 못하여 안달아하는 한 량반부자를 구슬리여가지고 한창 추위가 심한 때인 대한경에 다시 광포호수가마을로 내려왔다.



김선달이가 서울 량반부자를 데리고 나타나자 마을사람들은 이미 약속한대로 어른 아이 할것없이 선달에게 임금이나 대하듯이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서울 량반부자는 김선달이를 과연 권세도 높고 수많은 토지를 가지고있는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게 되였다.

그런데다가 그놈은 광포호수가에 가서 선달이 팔겠다는 논벌을 가리키자 더욱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광포호수가에 펼쳐져있는 논벌은 그 어데서나 흔히 볼수 없는 일등가는 논벌로 보였던것이였다.

김선달이 서울로 올라간사이에 호수의 얼음판우에 눈이 내려쌓였다 녹고 녹았다 얼군하여 뿌려놓은 벼짚묶음들이 신통히도 벼뿌리처럼 박혀있었고 바둑판처럼 줄그어놓았던 북데기와 풀단들에 얼음이 얼어 일매진 논뚝으로 보였던것이다.

이러한 논판들이 무연히 펼쳐진 논벌을 보게 된 서울 량반부자는 이미 선달과 언약했던 흥정에 의견없이 선뜻 거액의 돈을 내놓고는 그 논벌의 경작을 맡길 사람을 데리러 곧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여 서울 량반부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고스란히 빼앗아낸 김선달은 그 돈을 마을농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량반부자가 내려와 사실을 알고 날칠 때 일러주어야 할 말까지 대주고 김선달은 평양성으로 올라왔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이른봄날에 경작을 맡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온 서울 량반부자는 논벌은 온데간데없고 푸른 물이 출렁이는 무연한 호수를 보자 펄쩍 뛰며 노발대발하였다.

《여기에 있던 내 논은 다 어데로 갔는가?》

《저 푸른 호수가 삼켰지요.》

《뭐라구?》

그놈은 마을사람들을 붙잡고 호수를 논으로 속여 판놈을 당장 찾아내라고 호통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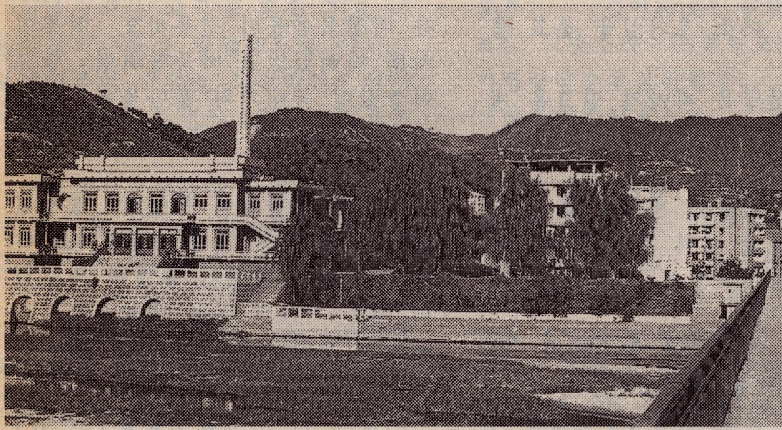
이때 마을사람들은 김선달이가 일러준 말대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어데론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서울량반들의 작은 배는 남의 논밭을 아무리 삼키여도 무탈한데 서울량반이 산 논벌 하나 삼킨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고 하였나이다.》

이 말에 서울 량반부자는 붉어진 얼굴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한다.

기행 — 동해기슭을 따라

안변, 통천 지구



안변군의 일부

동해의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 원산시를 바라보며 금야만을 감싸고있는 갈마반도를 에돌면 해안선은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남으로 뻗어나간다.

우리는 여기서 원산시 변두리와 경계를 이루고 바다기슭에 널리 펼쳐진 안변30리벌에 들어섰다.

강원도 세포군의 심산계곡에 시원을 두고 동해로 흐르는 안변 남대천의 하류에 전개된 기름진 안변벌은 동해안의 중요한 곡창지대의 하나이다. 100km²의 넓이를 가진 이 벌에는 월랑, 륙화, 천삼, 학천 등 안변군의 10여개 협동농장들이 자리잡고있다.

바다가에 자리잡고 수산업을 겸하고있는 월랑협동농장 기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에는 례년에 드문 알곡풍년, 물고기풍년이 들었웨다. 아마도 안변벌이 생긴이래 처음인가 봅니다.》

해방전 큰물피해와 가물피해로 빈손을 털고앉은 농민들의 한숨소리 높던 이고장이 오늘은 수많은 관개시설이 건설되고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덕으로 해마다 알곡과 남새, 과일 생산이 늘어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였다고 한다. 안변군에는 감나무밭만 하여도 600여정보나 된다.

전변의 력사를 더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1959년 6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 이르렀다.

야산기슭에 오붓이 들어앉은 문화주택마을들이 보였는데 마을마다 동산마다 감나무숲으로 덮여있었다. 마가을 첫 서리를 맞아 잎은 다 떨어지고 아지마다 휘늘어지게 열매만 달린 감나무숲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안변땅의 산기슭마다 청춘기를 맞아 주렁지는 감나무림 역시 옛날에는 볼수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풍치라 할것이다.

안변을 거쳐 통천땅에 들어선 우리는 장진, 자산 등 수산협동마을을 지나 해안을 따라 남으로 향하였다.

왼쪽으로는 맑고 시원한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알섬과 석도 등 여러 섬들이 점점이 떠있어 바다의 전망 또한 절승경개를 이루는데 오른쪽은 여러 호수들과 멀리 바라보면 험준한 태백산줄기의 수려한 산발들이 서서히 안겨온다.

어느덧 우리는 달밤의 아름다운 호수가경치와 감탕치료장으로 이름높은 시중호에 이르렀다.

시중호는 강원도 통천군 강동리에 자리잡고있는 바다자리호수인데 넓이는 2.94km²이고 둘레는 11.8km나 된다. 호수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고 호안선이 우불구불한데 제일 넓은곳이 2.5km, 좁은곳은 1.4km이고 깊은곳은 3.5m이다.

시중호라는 이름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찾아왔다가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된 나머지 정각을 세워 시중대라고 부른데서 나온것이라 전해오는데 지금도 호수안에는 이전 시중대가 서있던 섬이 있다.

시중호주위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호수가를 둘러싸고있는 낮은 산들은 푸른 소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호수의 북쪽과 동쪽에 펼쳐진 흰모래불은 해당화로 뒤덮여 여름한철 향기그윽한 꽃주단을 펼쳐놓는다.

시중호의 낮풍경도 좋지만 달밤의 풍경은 예로부터 더욱 유명하다.

> 련대봉 불로초는 못보면
> 한이 되고
> 시중호 저녁달은 볼수록
> 유정하다

이곳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이 민요의 한구절은 주위의 풍치와 조화를 이룬 맑고 고요한 호수속에 은빛 달 그림자의 어울림을 보고 노래에 담은것이다.

오늘 시중호는 잉어, 숭어 등 물고기들이 욱실거리는 양어장으로 훌륭히 꾸려졌다.

시중호의 바닥에는 질좋은 치료용감탕이 4~5메터의 두께로 깔려있다. 감탕에는 류화물, 칼시움염, 마그네시움염 결정수화물 등이 섞여있어 만성간염, 만성담낭담도염, 피부성염, 만성위염, 심장병, 신경질환, 부인병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

호수가의 록음우거진 숲속에는 잔잔한 호수의 물면과 잘 어울리게 종합치료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감탕치료시설을 갖춘 시중호료양소가 일떠서 해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서 감탕치료를 받고있다.

시중호를 떠난 우리는 통천군 소

54페지에 계속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자결한 왕자

고구려의 6대 왕인 류리왕때에 있은 일이다. 류리왕에게는 해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영특하고 힘이 셌으며 무술이 능하였다.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긴뒤에 옛수도에 남아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있던 해명은 어느날 사신으로부터 왕이 보내는 지시문과 칼을 받았다.

지시문을 뜯어보던 해명의 얼굴은 금시 까매졌고 여러 장수들은 놀라와 굳어졌다.

왕의 어명에는 이웃나라와 화목을 도모하여 나라와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부왕의 뜻을 어기였으니 신하된 본분에 앞서 자식된 도리로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서 보내는 칼로 즉시 자결하라는것이였다.

왕이 자기 자식을 죽이다니?!

왕자에게 죽을만한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죽어야 하겠지만 하물며 왕의 뒤를 이을 태자로 책봉된 해명에게는 그럴만한 죄가 없지 않은가. 부하장수들은 아연실색하였다.

여러 장수들은 해명의 손에 쥐여져있는 칼을 빼앗아내면서 절대로 자결해서는 안된다고 막았고 사신에게는 이웃나라와의 화목을 깨쳤다는 사연의 전후연고를 까밝히여 대왕이 내린 지시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였다.

하다면 해명이 이웃나라와의 화목을 도모하려는 왕의 뜻을 깨뜨렸다는 사연은 어떠했는가?

1년전 10월에 있은 일이였다. 이웃나라 왕이 해명에게 자기 나라에서 새로 만들었다는 센 활을 보내여왔다.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옛수도에 남아 군력을 다지고있지만 새로운 무기를 갖추어나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쩔 생각은 말아라) 하는 심산에서 보내온것이였다.

활을 받은 해명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하여 그는 사신앞에서 활을 힘껏 당기여 꺾어 뜨락에 던졌다.

소문대로 왕자님의 힘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신에게 해명은 《나의 힘이 대단한것이 아니라 활이 변변치 못하다.》고 조소하며 대답하였다.

사신은 돌아가 이 사실을 자기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면박을 받은 이웃나라 왕은 분을 누르지 못해하다가 보복으로 국내 위나암성에 있는 고구려 류리왕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 《선물》에 대한 왕자 해명의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고발하면서 그가 두 나라사이에 불화를 가져오려고 군사를 키우고있을뿐아니라 참을수 없는 모략도 꾸미고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했던것이다.

이 편지를 받고 노발대발한 류리왕은 즉석에서 사신을 보내면서 그에게 해명이 자결하라는 글과 칼을 주었던것이다.

해명의 부하들은 사신에게 당시 해명이 나라의 존엄을 지켜 취한 행동의 정당성과 이웃나라 왕의 모략을 까밝혔다.

류리왕이 보낸 사신도 그에 납득하며 감동을 표시했다. 그는 고구려 왕에게 사실을 말하고 이미 내린 지시를 취소하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사신은 해명을 군막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해명의 부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쓰게 했다.

이튿날 아침 사신이 글을 가지고 떠나려할 때 해명이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사신은 이미 내가 죽어야 한다는 대왕의 지시를 받고나왔던 길이니 돌아갈 때에는 죽었다는 보고밖에 가지고갈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신이 천금보다 더 무겁다는 왕의 지시를 취소해달라는 글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나라의 기강에 끼치는 해가 내 한몸 죽는것보다 몇백배 더 클것입니다.》

하고는 이미 창을 꽂아놓은곳으로 말을 몰아 질풍처럼 달리다가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왕궁으로 돌아간 사신은 왕앞에 전후사연을 보고하기전에 해명의 부하들이 썼던 글을 먼저 내놓았다.

글을 읽고난 왕은 그제서야 머리를 끄떡이였다.

《내가 미처 아들의 립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웃나라의 말만 믿고서 내린 지시였으니 이들의 제의대로 이미 내린 지시를 취소하도록 하라. 그러되 앞으로는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매사를 알리도록 하라고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라.》라고 하였다.

그제서야 사신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왕태자께서는 벌써 자결하셨나이다.》

《뭐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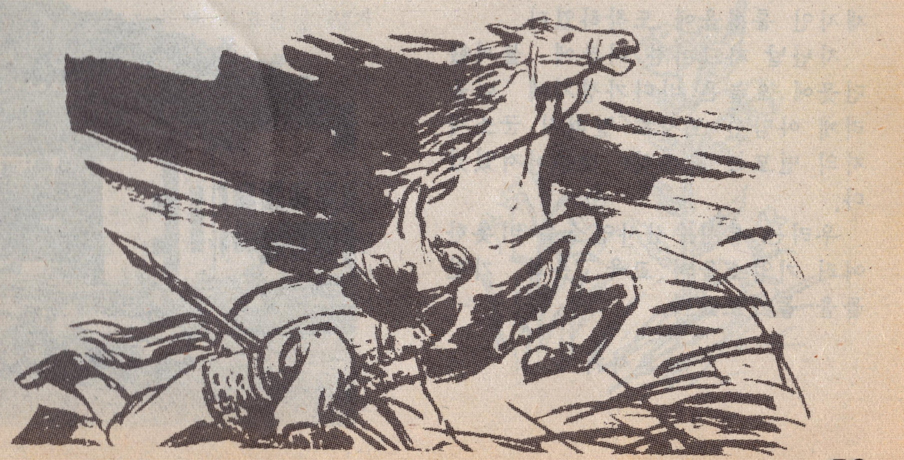
왕은 놀라서 일어섰다.

《이런 글을 올리는것을 그가 몰랐느냐?》

《알았나이다. 하지만 천금보다 무거운 왕의 지시를 다시 취소하는데서 오는 손실은 나라의 기강을 위해 자기가 죽는것보다 몇백배 더 크다 하시였나이다. 그리고 대왕의 자결하라는 지시에는 자결했다는 보고만이 있을수 있다면서 땅우에 박아놓은 창우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셨나이다.》

왕은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해명의 죽음은 비록 억울하였지만 그는 당시 나라와 부왕을 위해 충의, 충효를 다한 고구려의 아들이였다.



―가요해설―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

하늘에 닿을듯이 높이 쌓은 낟알 가마니와 넓은 분배장을 장식한 오색기들, 줄줄이 늘어진 테프와 꽃송이들은 마치 농장원들과 함께 환희와 행복을 맛보는듯 바람에 나붓기며 끝없이 설레인다. 이른아침부터 우리 인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오는 농악이 펼쳐져 하늘땅이 들썩거리는데 흐뭇한 분배를 받아안게 된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거두어들인 곡식처럼 풍만하고 호탕진 웃음이 함뿍 어린다.

이것은 결산분배를 하는 날 그 어느 농촌마을에 가서나 찾아볼수 있는 자랑찬 화폭이다.

시인 안호근과 작곡가 설명순은 이처럼 해마다 한가득 분배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모르는 농민들의 생활을 예술적형상에 담아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라는 재미있고 흥취나는 가요를 창작하게 되였다.

가요는 풍년분배를 많이 받은 배나무집 령감, 로친이 기쁨에 넘쳐 어쩔줄 몰라하며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 하고 밤새껏 토론하는 구체적인 생활계기를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과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려는 그들의 결의와 성수난 모습을 락천적인 선률로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부르면 부를수록 생활의 깊은 뜻이 안겨온다.

《늙으면 아이 된다》는 속담대로 많은 분배를 받은 배나무집 령감, 로친은 너무도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마냥 어쩔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이들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일생동안 마음과 힘을 바쳐온 농사일이여서 늙은 몸이지만 차마 일손을 놓지 못하고 올해에도 논벌에 나가 힘자라는껏 일해온 배나무집 령감, 로친은 자기 로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며 자기들의 자그마한 로력까지도 일일이 헤아려 분배로 안겨준 나라의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노래한 가요의 2절에서는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돌려지고있는 조국의 은정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분배를 탄 농민들의 기쁨과 행복,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농민들의 지향과 열정이 승화되여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가요는 행복한 삶에 대한 억제할수 없는 희열과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풍년으로 보답하자는 힘있는 호소로 끝맺고있다.

가요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는 우리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있으며 특히 농민들이 즐겨 부르고있다.

생활속에서 창조되여 생활속에서 불리워지고있는 생활의 숨결이며 맥박인 이 가요는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에서 자기의 참된 삶과 행복을 찾을줄아는 우리 인민들의 환희와 랑만의 노래로 언제나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것이다.

1절 :

풍년농사 분배받은 기쁨을 안고서
배나무집 령감로친 어쩔줄 모르네
입쌀찹쌀 모두 합쳐 열세톤 칠백에
현금분배 한보따리 지고왔으니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
배나무집 령감 배나무집 로친
밤새껏 토론하네

2절 :

옛날에야 이 돈이면 집 한채 사고도
누렁황소 두마리는 더 사고 남으련만
집은 사서 무엇하랴 소는 사서 뭘하랴
뜨락또르 문화주택 주시였으니
…

3절 :

밤새도록 토론끝에 그 어델 가시나
나라살림 보태려고 저금소 찾아간다오
올해에도 풍년농사 더 잘 지어서
수령님의 이 은덕에 보답하세나
이른새벽부터 성수가 났네
배나무집 령감 배나무집 로친
일손도 흥이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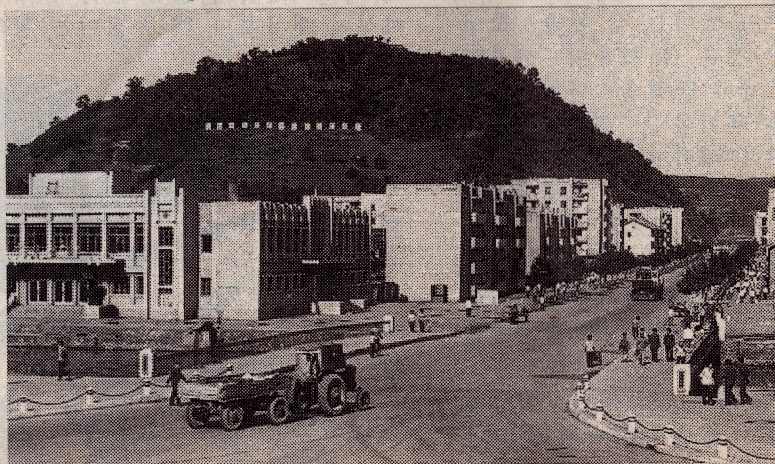
52페지에서 계속

재지인 통천읍에 도착하였다.

지난날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했던곳에 오늘은 바다가경치에 어울리게 아담한 도시로 일떠서 군소재지의 면모는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우리는 통천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 기관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통천군의 일부

평양전설

달맞이꽃

옛날 고구려시기 대성산기슭에 있은 안학궁의 동북쪽 입구였던 시족원이라고 불리우는곳에는 달맞이꽃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곳에 달맞이꽃이 번성하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당시 고구려에는 외교에 능한 김피라는 관리가 있었다.

고구려의 북방은 여러 나라들과 린접하고있기때문에 그들과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군하였으나 그때마다 김피가 나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군하였다. 그래서 김피는 능한 외교관으로 일찍부터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김피가 늙어가게 되자 고구려에서는 그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해 한 젊은 관리를 선발하여 그의 능란한 외교적수완을 따라배우게 하였다.

젊은 관리는 그날부터 김피를 따라다니며 그의 뛰여난 외교적수완을 따라배우려고 애썼으나 김피에게서 남보다 특이한점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품격이 우람하거나 위엄스러운 점도 없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으며 인상이 매섭거나 날카로운 점도 없었다. 언제나 인정많은 이웃집의 수수한 로인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대결하기 위해 사전에 사리정연한 말구를 고르느라고 밤을 밝히는적도 없었다.

오직 그가 다른 관리들에 비해 다른점이 있다면 꽃을 몹시 사랑하는것뿐이였다.

이때에 외교문제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관리들은 그 나라의 특산물이나 희귀한 상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김피만은 희귀한 상품엔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아름다운 꽃을 구하기에 힘썼다.

다른 나라에 갔던 관리들은 수레마다 물건짝들을 가득히 가지고와서 재산도 불쿠고 친척, 친우들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김피의 짐이란 한두개의 꽃화분뿐이였는데 그것도 자기 집도, 관청도 아닌 시족원에다 그 꽃들을 심군하였다.

그가운데는 뿌리를 박지 못하고 죽는것도 있었으나 잘 자라 해마다 번식해나가는것이 많았다.

젊은 관리는 나라에 이름있는 외교관의 풍격답지 않게 녀인들처럼 꽃에 오금을 못쓰는 김피가 민망스럽게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어느해 한번 김피가 시족원에 꽃을 떠다심는것을 보다못해 한마디 물었다.

《무슨 덕을 바래 이런 수골하시나이까?》

《무슨 덕을 바래서 이러겠나. 그저 다른 고장에 있는 꽃이 우리 평양성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편안치 않아서 그러네.》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구요?》

《그래, 우리 평양성이 꽃 한떨기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뒤지게 하고싶진 않거든…》

이때 젊은 관리는 이런 말을 듣고 김피가 괴이한 취미를 가지고있는것으로만 치부하고 스쳐지났다.

이리하여 젊은 관리는 김피에게서 특이한 외교적수완을 발견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던중에 그만 김피가 세상을 떠났다.

김피의 령구는 그의 소원대로 평양성 입구인 시족원에다 묻었다.

그뒤 얼마 안있어 북방변경에서 또 말썽이 생겨났는데 나라에서는 젊은 관리를 외교관으로 파견하였다.

그가 떠나는 날 임금은 《그동안 김피의 외교적수완을 충분히 배웠을테니 이번 일에서 그처럼 유감없이 잘 처리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 말에 젊은 외교관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김피에게서 배운 특이한 수완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어떻게 해야 김피처럼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취락펴락할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밤을 새우던 그의 가슴속에는 자기를 전송해주듯이 유정하게 설레이던 시족원의 아름다운 꽃들이 안겨들면서 그 꽃들을 심으며 하던 김피의 말이 새삼스럽게 울리여왔다.

《…우리 평양성이 꽃 한떨기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뒤지게 하고싶진 않거든…》

젊은 외교관은 무릎을 치며 일어났다.

(바로 그 마음이였구나!

평양성이 다른 나라보다 뒤지게 하고싶지 않은 마음!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에 업심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수 없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김피의 능한 외교적수완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젊은 외교관은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방안을 거닐며 혼자소리로 웨쳤다.

그 다음날 그는 린접나라의 외교관을 만나자 밤새 솟구쳐오르던 분노를 안고 들이대였는데 대방의 외교관은 두어마디도 못하고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노라고 빌었다.

담판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가 돌아오자 높이 평가해주었다.

《과시 그대야말로 우리 고구려의 자랑이였던 김피의 외교적수완을 그대로 이어받았노라.》

그러자 젊은 외교관은 머리를 들고 임금에게 《아뢰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스승인 김피의 외교적수완을 배운것이 아니라 나라와 평양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나이다.》라고 말하며 김피가 시족원에 많은 꽃을 구해다 심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임금과 관리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며 말하였다.

《그의 림기응변의 외교적수완은 풍격이나 언변술에 있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수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었구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평양성안팎의 인민들은 김피의 애국적넋을 칭송하여 그가 시족원에 떠다심은 꽃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가꾸고 키워왔으며 그가운데서 북방변경에서 떠왔다는 달맞이꽃을 그의 묘와 시족원에 가득 심어 만발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시족원에 달맞이꽃이 번성하게 되였고 외교문제로 다른 나라에 가는 외교관은 물론 외적과 싸우려 평양성을 떠나는 군사와 젊은이들은 시족원의 달맞이꽃과 그에 깃든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원쑤들과의 싸움과 대결에서 언제나 나라와 평양성의 명예와 존엄을 빛내여왔다고 한다.



이해의 독자란을 펼치고

잡지 《금수강산》의 독자여러분.

1994년을 보내며 본사편집부는 올해에도 잡지의 편집과 발행에 큰 관심과 기대, 성의를 표시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간된지 5년밖에 안되는 《금수강산》이 오늘 해외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인기있는 대중잡지로 널리 알려지게 된데는 독자여러분의 노력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잡지에는 독자들이 직접 투고한 글들과 해외동포들의 감정과 정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글 및 사진들이 수많이 실렸습니다.

편집된 글과 사진들은 고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진실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잡지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충만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금수강산》의 품위를 더욱 높여주었으며 잡지와 독자대중과의 사이를 한결 더 가깝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독자여러분이 보내준 고무와 조언들도 우리 편집집단에 큰 힘을 보태주었으며 잡지의 편집과 발행 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조윤해서기장, 중국 길림성 연변의학원의 최송암동포,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의 리금숙동포를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잡지 《금수강산》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자기들에게 비쳐드는 고국의 따스한 해볕이며 고국을 알게 하는 귀중한 교과서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지룡천동포, 로련 하바롭스크변강 비로비쟌시의 조순단동포, 로련 싸할린주 홀름스크시의 박녹주동포, 로련 하바롭스크변강 하바롭스크시의 김형소동포, 중국 길림성 도문시 손경자동포 등 고국을 다녀간 동포들은 산천경개 수려하고 날로 륭성번영하는 고국의 모습에서 한없는 민족적자부심을 느꼈으며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보게 되였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중국, 일본, 로씨야, 미국, 카나다 등 해외각지의 동포들은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고 수령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글들과 그이를 추모하는 조문들을 련이어 보내여왔습니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 조선족실험소학교의 김동식동포는 《비통을 용기와 힘으로》라는 글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잃은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진것과 같은 슬픔이라고 쓰고 7천만 겨레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최고령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반드시 완성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올해에 많은 독자들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는 좋은 글들을 잡지에 발표하였습니다.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송영집부의장, 중국 길림성 훈춘시의 장생금로인과 그의 맏아들 최택룡동포, 로련 싸할린주 아니와시 박성도동포, 중국 료녕성 심양시 김영수동포,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손성일동포들은 민족분단의 가슴아픈 현실은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90년대에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설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림옥순동포,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남영혜동포, 까자흐스딴 딸듸꾸르간시의 리 보리스동포, 중국 산동성 제남시의 리신자동포,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의 남초월동포들은 자기들의 글에서 해외에서도 민족의 얼을 잃지 않고 애국사업에 헌신하고있는 동포들의 생활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 본사편집부 앞으로는 해외각지의 동포들로부터 우수한 문예작품들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것은 중국 길림성 휘남현 교원연수학교 류시홍동포의 시 《압록강 굽이굽이》, 중국 길림성 화룡현 강창룡동포의 시 《봄빛》,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사범부속소학교 김경률동포가 작사, 작곡한 노래 《가고싶은 조국》, 중국 료녕성 금주시 리만수동포의 시 《솔잎》, 까자흐스딴 작가동맹 조선문학분과 책임자 우제국동포의 우화시 《게와 가재》 등입니다.

이밖에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강일위원장,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양영동의장, 미국 로스안젤스에 있는 《신한민보》사 김운하사장, 독일에서 살고있는 신옥자교포 등 많은 독자들이 잡지의 편집과 관련되는 귀중한 조언들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실하고 열정적이며 친근한 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사편집부는 앞으로도 독자여러분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잡지 《금수강산》을 더욱 다양하고 특색있게 그리고 흥미있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아울러 래년에도 독자여러분들이 좋은 글들과 귀중한 조언들을 더 많이 보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금수강산》편집부

함 흥 선 화 당

함흥선화당은 리조시기에 함경도관찰사(감사)가 행정사무를 보던 지방관청건물이다.

선화당은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동흥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서있다.

선화당에는 지금 기본건물인 선화당과 부속건물인 징청각이 남아있다.

이 건물은 1416년에 함흥을 함흥부로 승격시키고 관찰사본영을 여기에 두게 되였을 때 세운것이다. 지금의 건물은 1710년부터 보수하여 1764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건물은 앞면 8간, 옆면 4간이며 다듬은 돌을 층층으로 쌓아올린 밑단우에 4각형 주추돌을 놓고 밖으로 돌아가면서 24개의 홀림기둥을 세웠다. 두공은 3익공바깥도리식이고 겹처마의 합각형식인 지붕의 룡마루, 박공마루, 추녀마루, 지붕면 등은 모두 아름다운 휘임선을 이루고있다.

선화당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화반의 생김새이다. 기둥과 기둥사이마다 액방우에는 꽃무늬를 새긴 길이 1.3메터, 높이 0.5메터의 큰 화반을 놓았다. 화반들은 선이 굵고 생동하며 그 빛갈이 다채롭다. 화반과 제공, 보머리 등은 모두 리조시기 나무조각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건물에는 모루단청을 입혀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건물안에는 앞뒤로 7개씩의 네모기둥이 줄지어 서있다. 매 간마다 문을 닫아 둘러막게 되여있다. 문짝들은 때에 따라 우로 처들어 매여달면 그안이 넓은 대청마루로 되게 되여있다.

관찰사가 살던 방은 서쪽에 있으며 거기에는 고미다락도 있다. 건물안은 소란반자를 하여 화려하다.

선화당은 규모가 크면서도 잘 째인 건물이다.

함흥벌이 바라보이는 선화당은 함흥10경의 하나로 손꼽히였다고 한다.

선화당에는 본래 하급관리들이 일을 보는 많은 부속건물들이 있어 규모가 컸다. 이것은 관찰사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호화스럽게 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더는 참을수 없었던 함경도 인민들은 1467년 5월 폭동을 일으키고 선화당에 쳐들어가 악질적인 함경도관찰사를 처단하고 관군과 맞서 희생적으로 싸웠다. 농민봉기는 1862년 10월에도 있었다.

그때 선화당에는 《좋은 정치를 베푼다는 선화당우에는 화가 서리였고 백성이 즐거워야 할 락민루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도다 》라는 격문이 나돌았다고 한다.

함흥선화당은 리조시기 관청건물의 짜임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며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보여주는 가치있는 민족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